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 제 지 역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과 미얀마의 국제개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

2018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지 역 학 과

A Me Kyaw Win

국 제 지 역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과 미얀마의 국제개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 호 림

이 논문을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지 역 학 과

A Me Kyaw Win

A Me Kyaw Win의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23일

위원장　정치학박사　이 홍 종　(인)

위　원　인류학박사　노 용 석　(인)

위　원　인류학박사　최 호 림　(인)

목 차

ABSTRACT ····· v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방법과 내용 ····· 6

제 3 절 이론적 배경 ····· 8

1. 직업교육훈련 개념과 이론 ····· 8

2. 국제개발협력과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 12

제 2 장 한국의 직업교육훈련과 베트남 국제개발협력 사례 ····· **16**

제 1 절 한국의 직업교육훈련(VET) 현황 ····· 16

1.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변화 ····· 16

2.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구조 ····· 23

제 2 절 한국의 베트남 직업교육훈련분야 개발협력사례 ····· 28

1. 한국의 베트남 개발협력 사례 ····· 28

2. 한국의 베트남 직업교육분야 개발협력 ····· 31

제 3 절 소결 : 한국 직업교육훈련의 변화와 베트남 개발협력의 변화요인 ····· 36

제 3 장 미얀마 직업교육훈련분야 현황과 문제점 ····· **39**

제 1 절 미얀마 정치변동과 경제현황 ····· 39
1. 미얀마 정치적 변동 ····· 39
2. 미얀마 산업과 경제적 구조 ····· 40
제 2 절 미얀마 직업교육훈련(VET)의 현황과 문제점 ····· 44
1.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의 역사적 배경 ····· 44
2.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의 법 제정과 최근 운영현황 ····· 46
3. 미얀마 (2016-21년)직업교육훈련 ····· 47
제 3 절 소결 :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 ····· 53

제 4 장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미얀마 직업훈련의 개선 ····· 55
제 1 절 한국의 따가야 직업교육훈련 사업 ····· 55
1. 운영상태 후기 및 문제점 ····· 57
제 2 절 산업연수생 조사를 통한 직업교육훈련센터 수요분석 ····· 58
1. 조사개요 ····· 58
2. 조사내용 ····· 60
제 3 절 소결 : 한국과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필요한 개선방안 ····· 69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72

참고문헌 ····· 76

[부록] ····· 82
설문지 ····· 82

표 목차

<표 2-1> 단계별 직업훈련제도의 발전 ····· 19

<표 2-2> 한국의 직업훈련 관련 법령 ····· 25

<표 2-3> 직업능력개발 사업체계 ····· 26

<표 2-4> 한국이 베트남에 직업교육훈련관련 투자금액 ····· 32

<표 2-5> 한국의 베트남 직업교육 지원 사업 현황 ····· 36

<표 3-1> 미얀마 주요경제 지표 ····· 42

<표 3-2> 미얀마 경제정책 주요 내용 ····· 44

<표 3-3> 2016~21년 직업교육훈련 전략 예측 ····· 51

<표 4-1> 미얀마 따가야 직업훈련원 지원 개요 ····· 56

<표 4-2> 사업종료 후 문제점 제기 ····· 58

<표 4-3> 산업연수생 설문조사 ····· 60

그림 목차

<그림 2-1> 한국의 고용보험 전•후 ····· 23
<그림 2-2> 생애단계별 정규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역할 ····· 27
<그림 2-3> 베트남 기본학제 및 직업교육훈련(2013) ····· 29
<그림 2-4>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 구조 ····· 30
<그림 2-5>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기관 유형(2011) ····· 31
<그림 3-1> 기술•직업교육훈련법 (TVET Law) 경로 ····· 51
<그림 4-1> 울산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68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A Study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lan between Korea and Myanmar

- Focusing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A ME KYAW WI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2010, Myanmar entered in the democratic circle and got the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eanwhile, Myanmar show its improvement of economic development and mention the need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ts development. However, in order to focus on Myanmar's economic development, we need to underst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people and its education system, which are the driving force and components of its economic development. At present, training and vocational education are indispensable in Myanmar. Therefore, training and vocational education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 standard education system of Myanmar to promote its human resources.

The experience of aids and related researches are rare in the training

and vocational education sector in Myanmar. This research is a basic study and has been analyzed on the training and vocational education in Myanmar. It provides basis directions on the related sector and points out the areas of necessary cooperation in this sector. To motivate the importance of Myanmar's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Korea, this paper is researched o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of Korea, analyzing in the case of Vietnam supported by Korea, and the analysis of Korea's assistance to Myanmar. This research also accomplished by making survey and questionnaires applied to Myanmar people who are educated in the technical training system of Korea.

Therefore, this research provides the necessary key points of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raining and vocational education in Myanmar and ways to improve building the cooperation effectively. The analysis and survey process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 helpful as a basic data by suggesting the directions for further training and vocational education in Myanmar.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미얀마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과 미얀마 양국의 국제개발협력 방안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이 연구를 이끈 직접적 동기는 현실적으로 당면한 미얀마 경제발전과 밀접한 사회적 문제점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토대로 미얀마의 직업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이 어떠한 사회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했다. 해외연구에 의하면 직업교육훈련은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뒷받침 해줄 근거는 한국의 발전과정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이 한국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듯이 직업교육훈련이 미얀마의 경제발전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가정을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국과 국제개발협력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상황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이 지속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떠한 국제개발협력과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인간과 교육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언급한 '인간자본론'은 인간이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고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인간의 가치가 증가되면서 사회가 발전한다는 개념으로써, 교육을 소비가 아닌 투자로 보고 있다. 이 이론은 제 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나라들의 급속한 복구에 기여했다. 교육을 통해 인간자본을 확보하면 개인과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chultz. 1963).

세계인권선언문 26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은 최

소한 기초적인 단계에서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인권선언문은 직업교육훈련(VET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과 관련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교육과 연계된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1]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현대의 직업교육은 편협한 “기술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이해와 감각을 중시하는 “기술교양(Technological Literacy)교육”으로 확장되어 자리 잡아가고 있다(McCrory, 1987). 직업교육이 편협한 취업교육의 체제에서 탈피하여, 교양교육의 의미가 강조되는 폭 넓은 직업 교양교육(Socio technical Literacy)으로 새롭게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Lewis, 1991). 과거 직업교육훈련이 전적으로 경제적 기술분야 발전에 치중되었다면, 현대의 직업교육훈련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폭 넓어진 개념과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하면서 직업교육훈련의 의미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개발협력이 손길로 이어지게 된다.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에서 저개발 국가의 발전은 발전을 하겠다는 정치적인 의지만 있다면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은 이미 선진국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제도와 방법을 모방함으로써 비교적 단시간 내에 이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이 개발협력분야와 상응하는 이유는 근대화이론과, 인간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등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교육으로 노동력의 질이 높아지면 인적자본의 수준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시민사회와

---

1) 세계인권선언문 26조
https://amnesty.or.kr/resource/%EC%84%B8%EA%B3%84%EC%9D%B8%EA%B6%8C%EC%84%A0%EC%96%B8/ (검색일 : 2017년 4월 24일)

국가 발전의 토대인 법,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05)

세계의 직업교육훈련(VET)은 역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고용 없는 성장의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효율화 및 노동 시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훈련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국민교육과 국가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공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OECD에서도 인적자원개발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직업교육훈련은 세계인 개발협력 차원에서 서로 간 발전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급속한 기술변화와 고령화에 대비해서 직업교육훈련(VE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기능과 내용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제 노동시장 활성화로 인해 직업의 구도와 활동영역을 넓게 측정하게 되었다. 개방적 국제노동시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필요한 나라에 거주하며 합당한 임금을 받고 자신의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이로 인해 직업의 구도가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해 졌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시장으로 발을 뻗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직업교육훈련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개방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지닌 나라에서 연수형태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양국 간의 인적 교류와 개발협력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의 개선을 위해 한국과 미얀마 양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특히 제도개선을 위한 개발협력에 초점을 둔다. 직업교육훈련(VET)은 국가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먼저 미얀마의 사회경제적 상

황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미얀마는 자원이 풍부하고 영국의 식민 통치하에도 불교를 유지하였다. 현재도 대부분 미얀마 국민들이 불교를 믿고 있을 정도로 불교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가 상좌부불교[2]를 바탕으로 건립된 나라인 만큼 건축양식과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미얀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미얀마는 대부분이 자연친화적인 불교건축양식에 투자를 많이 한다. 금으로 장식된 건축물도 많고 미얀마 국민들은 자신이 가난해도 타인을 도와주거나 혹은 공양을 드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불교계에서 가난해도 남을 도와주면 후생에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가 국가의 위에 군림했던 십자군 전쟁이나 바티칸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종교가 국가위에 군림할 때 부정부패가 가장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정책을 들여다보면 미얀마에서는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파레토 법칙(Pareto's law)[3]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실제로 미얀마 국민에게 경제성장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민주화 이전에 다년간의 외국인투자는 기득권층이 독점하여 대부분 이득을 호의호식했다. 또한 대부분 중국투자가 실세를 이루었으나 실제로

---

2) 상좌부 불교(上座部佛教) 또는 테라바다(Theravada)는 부처의 계율을 원칙대로 고수하는 불교를 말한다. 대중부 불교와 함께 인도 소승 불교의 2대 부문(部門)의 하나이다.

3) 소득분포에 관한 통계적법칙으로서, 파레토가 유럽제국 의 조사에서 얻은 경험적 법칙으로 요즘 유행하는 '80:20 법칙'과 같은 말이다. 즉, 상위 20% 사람들이 전체 부(富)의 80%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위 20% 고객이 매출의 80%를 창출한다든가 하는 의미로 쓰이지만, 80과 20은 숫자 자체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성과의 대부분(80)이 몇 가지 소수의 요소(20)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웹2.0 시대를 맞아 퇴장하고 틈새상품이 시장을 주도하는 '롱 테일 경제'가 자리잡고 있다.

미얀마 국민에게 돌아간 이익은 낮다. 현재 미얀마는 대부분의 개발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 현지에 머물러 있는 개발과 노동력을 뒷받침해줄 법안이 부재하다.

민주화가 진행된 이의 후 2015년에 미얀마 경제는 8% 대의 고성장이 지속됨에 반해 9% 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급여 인상, 전기료 인상,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소비자 물가상승, 무역적자 확대, 정부의 제한된 거시경제 관리 능력 등이 주원인으로 악재를 면치 못했다(양곤무역관.2015). 2016년 기준 미얀마 1인당 GDP는 $1,275로 이를 원화로 환산해보면 연수입이 대략 144만원이며, 월수입은 12만원이다. 이를 1일로 환산 할 경우 하루에 4600원의 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보통 부양가족의 월수입으로 식자재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큰 포대를 기준으로 쌀 한 포대와 오일, 소금 등 미얀마 일반가정의 필수 식자재 구입으로 대략 5만원이 필요하다. 평균적으로 한 달 생활 식자재 가격이 월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즉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의 상승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물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얀마가 개방경제시대를 열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로 자국 내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성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에 비해 숙련기술부문이 부족하여 미얀마 국민들이 단순노동직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직업의 다양성 또한 부족하여 많은 국민이 일할 수 있는 문은 좁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외교단절과 독재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던 탓도 있지만 현 정부의 행정처리 미숙과 관련 되어있다. 또한 미얀마의 인구대비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관도 부족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점도 빠질 수 없는 근거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미얀마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로서, 직업교육의 기본방향과 한국과 관련 정책과제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과의 개발협력을 통해 사회경제구도에 맞게 안정적인 직업교육훈련정책의 실행을 바탕으로 삶에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사회경제구도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자 목적이다.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을 실행에 앞서 개발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미얀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의 연구에 대한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미얀마의 직업교육훈련의 기반을 다지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에 적합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미얀마와 한국의 개발협력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제도개선과 함께 이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이다.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은 미진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직업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원조 경험에 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미얀마의 경제개발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미얀마에서 '2016~21년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고, 또한 미얀마가 직업교육훈련 부분에 관해 개발협력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얀마의 직업교육훈련은 초기 실행단계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한국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40년이 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해왔기에 빠른 발전이 필요한 미얀마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향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주요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먼저 미얀마의 직업교육훈련의 정착을 위해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의 현황과 행정능력에 관한 연구

문헌을 중점으로 수집하여 참고하였다. 한국의 직업교육제도에 관한 연구자료 및 문헌을 분석하여 미얀마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와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 및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으로 교육을 받으러온 미얀마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의 제도개선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016년 9월 17일, 24일에 실시하였고 각 회사 대표 외 19명으로 구성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과 내용, 선행연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 하고자한다. 특히 변화의 전환점을 통해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의 안착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이 가장 많이 개발을 지원한 베트남을 사례로 두어 어떤 방식으로 개발협력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검토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미얀마의 직업교육훈련이 어떤 구조로 형성되어있는지 보기 위해 미얀마의 정치적 변동과 경제현황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의 역사를 검토한 후 직업교육훈련이 가지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 미얀마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 먼저 접근하고자 한다. 현재 실행중인 2016-21년 직업교육훈련 정책에 관하여 기술하고 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한다. 제4장은 한국이 미얀마에 직업교육훈련에 관련하여 가장 근접한 지원 사례를 들어 접근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사실적 접근을 위해 한국에 거주하며 기술을 배우고 있는 연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가장 필요한 부분에 근접한 자료를 수집하여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

로 한국과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안착에 대해 고찰 할 것이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에 대해 서술 할 것이다.

제3절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과 개발협력을 통해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의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이 인적자원과 경제발전 그리고 개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개념과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개념과 관련 이론의 핵심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1. 직업교육훈련 개념과 이론

1)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직업교육훈련은 특정 직업 또는 특정 유형의 직종에 맞게 설계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러한 직업•직종에 종사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교육훈련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다. 직업교육훈련은 직업과 관련된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업교육 또는 특정한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반복하여 숙달시키는 것을 말한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서로 구분되는 제한적 의미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광의의 직업교육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점차 두 개념의 구분 없이 직업교육훈련이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통

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사회에서 직업교육훈련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직업훈련은 기술적 또는 직업적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훈련방식을 말하며, 이것이 기업체 현장에서 실시되거나 학교에서 실시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 하였다(주인중 외, 2000).

직업교육훈련은 역사적으로 기술획득의 기본적인 수단이 되어왔다. 여전히 개도국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통적 도제제도[4](traditional apprenticeship system), 경력 근로자에게 현직에서 제공되는 규정된 도제제도, 관리 기수에 초점을 두고 훈련센터, 학교, 훈련 컨설턴트의 서비스 판매를 통하여 실시되는 기업훈련, 광범위한 직업과 기술 수준들의 진입에 필요한 기술을 공공기관 혹은 하위 부문 훈련제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산업부문별 훈련, 프로젝트 관련 훈련 등이 있다. 많은 국가에서 직업교육훈련과 유사어로 사용되고 있는 직업 중등학교, 동일시설 내에 학문적인 것과 직업적인 것을 구분하여 제공하는 종합학교, 모든 학생에게 일반 교육과정과 함께 직업 과정을 제공하는 것, 일반교육과정을 이론과 실기 강좌로 결합하는 직업학교 등을 포함한다(한숭희 외, 2012).

2) 직업교육훈련의 이론

유진영(2015)은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프로이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았다. 특히 산업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업학교제도에 변화가 있었으며, 실업•직업 기술교육제도는 당시 변화하는 기술발전과

4) 교육자(도장인)과 도제와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로 기술교육과 인간교육이 병행되어 장래의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제도.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통적 방식에서 근대적 교육제도로 변화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룬드그린(Lunbdgreen 1973)이 관점은 산업화시기에 교육이 질적 향상을 보였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술적 진보에 영향을 끼쳤다.

에반스와 에르(Evans & Herr 1978)는 직업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직업에 관한 교양교육적 기초능력을 길러 일상생활 특히, 의식주 생활에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기르고, 여러 교과에 대한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둘째, 개인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시킨다. 셋째,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한다.

월터와 베버(Wolter & Weber 2005)는 직업훈련과정이 노동시장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후기 중등 직업훈련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미국에서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여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후기 중등단계의 기술교육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단계 학생의 2/3가 일종의 직업교육훈련(VET)에 참여하는 스위스에서도 후기 중등 VET의 투자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정지선 외(2007)는 “아태지역 직업교육훈련기관 실태조사 사업1 : 라오스 연구에서 라오스”의 경우 2,3차 산업발전을 견인할 직업교육훈련기관 설립, 기자재 및 교재 제공, 숙련된 교사 양성 등이 주요 개발수요인 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인원 외(2010)에 의하면,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는 교육행정 및 정책개선, 교육시설 건립 및 재보수, 교사 재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의 순으로 개발수요가 크고,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 행정 및 정책, 교육시설 건립 및 재보수,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교사 재교육, 전문봉사단 파견,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순으로 개발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중 외 (2000)에서 인적자원개발회 규정9대통령령(제16,735호, 2000.2.28.)에서는 부처간 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노동부 장관을 포함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기로 했다. 교육•문화•과학기술 정책 등의 인적자원의 개발 추진에 관련하여 각 부처간의 정책을 조정 및 협의하기로 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는 인력 수립 예측 모델 개발과 인력 수급 관련 통계의 개선, 직업정보 제공 기능의 강화 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학령 인구의 급증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소수민족, 작후 지역의 거주자,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원조의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원권, 문영주. 2011).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교육은 인간이 지녀야할 근본과 사회적 바탕에 적응하도록 뒷받침 해줄 구체성을 부여한다. 과거에도 인간과 교육의 이론은 끊임없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주체성과 직업 그리고 경제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를 가속화 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교육은 유동성을 지닌 사회에 인간이 적응 가능하도록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하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면, 추가교육은 삶의 질에 대해 관여한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은 직업선택의 기회와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주는 원동력인 동시에 평생교육으로써 자리 매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의 연구는 다원화 된 이론들을 창출하고 이것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발전의 동기가 되면서 단순히 사람이 경제의 소모품이 아닌 인간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직업의식의 윤리가 고취되었다. 이를 토대로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이론을 추산할 수 있다.

2. 국제개발협력과 지속 가능한 목표(SDGs)

1)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란 선진국-개도국 간, 개도국-개도국 간, 또는 개도국 내에 존재하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이전까지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도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쉽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OECD)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개발협력은 원조지원이나 경제협력에 비해 더욱 상호주의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고 협력분야를 경제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문화 분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 사회개발을 지원하는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을 말한다.[5)]

2) 국제개발협력 이론과 SDGs

국제개발협력의 조항에 따르면 1996년에 시작하여 2015년에 종료된 MDGs는 8개의 목표, 18개의 세부목표를 실행했다. 교육관련 내용은 목표 2에서는 보편적 초등교육 제공을 하고, 목표 3에서는 여성평등 촉진 및 여성인권 향상이 반영되었다. 반면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가 제시되었다. 과거 MDGs가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목표를 가지고 종료하였고, 다시 새롭게 시작된 SDGs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교육부분에 있어 새롭게 부가되어 목표 4에서는 많은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목표 4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다. 세부적으로 4-1에서는 모든 여아와 남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상의 공평하고 양질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한다. 4-2에서는 모든 여아와 남아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돌봄, 초등 전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4-3에서는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으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과정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4에서는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증대한다. 4-5에서는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4-6은 모든 청소년과 성인 남녀가 최소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성취하도록 보장한다. 4-7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5) ODA KOREA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비형식 교육인 직업훈련과 관련된 목표 8에서는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다.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생산정직 완전한 고용, 청소년•장애인을 포함한 남녀 모두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달성을 목표로 한다.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상태인 청년의 비중을 실질적으로 경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6)]

인간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에서 교육은 인간성장과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써 개발협력의 핵심요소이다. 교육을 통해 미성숙한 아동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의 수준이 향상되고 시민사회 발전의 근간인 법, 규범,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등이 형성 가능하다(World Bank, 1994 ; MOSF and KDI, 2011) 교육이란 기본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며 그 사람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출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발전의 근원으로 개발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성 요소이다.

리에펠과 폭스(Rieffel and fox 2013)는 미얀마 신정부 출현으로 이에 대한 개발협력을 주도적으로 소개했다. 파리협약에 의한 수원국에 해악을 미치지 않고 원조원칙에 적합한 원조가 실시되고 있으며, 정치•경제 경험, 미얀마 내정. 개발협력 사례 등을 들었다. 이석희 외(2009)는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교육협력 수요분석 및 과제에서 초•중교육에서 교사 양성과 시설건축 및 개보수 사업, 직업훈련에 있어 시설건축 및 개보수사업에서 교육정보화와 인프라의 구축에 대해 언급했다. 고등교육에

6) 『국제개발협력』에서 SDGs관련 발췌.

선 해외연수 기회의 확대,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확대, 대학생의 해외유학 및 교류를 확대했다.

여기서 교육은 개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으로도 표현이 되어있다. 그만큼 교육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바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서로 상부상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육과 개발협력 또한 인간중심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뻗어나가는 가지처럼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얀마에 한국과 개발협력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연구사례는 보고서 외에는 희소하며, 수요에 비해 연구자와 자료 역시 부족한 형편이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원조의 경험이 없으며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자료는 현저히 부족하다. 민주주의 이전의 미얀마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관련기관 역시 지역에 비해 건립한 기관은 적다. 또한 2010년 11월을 기점으로 민주정권으로 바뀜에 따라 미얀마 공식 직업교육훈련(VET)사이트의 의하면 실질적으로 몇 개의 행정기관만을 두었을 뿐이다. 새롭게 실행하는 정책은 관련 연구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행하는 단계여서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동반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제2장 한국의 직업교육훈련과 베트남 국제개발협력 사례

제2장에서는 미얀마에 최적화된 방법을 찾기 위해 우선,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분석하고, 또한 한국이 가장 많이 지원한 베트남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절 한국의 직업교육훈련(VET) 현황

1.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변화

1) 고용보험 적용 전

미얀마의 바람직한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개선과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변화를 우선 참고하고자 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전의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은 그야말로 황무지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았으며, 가이드가 있어도 생소함 속에서 직업교육훈련이 자리 잡아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오차와 범위를 다루어 가며 전환점을 삼은 것은 그야말로 땀방울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과 다름없다. 이 고용보험 시스템은 한국의 직업교육제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표 2-1>를 보면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전형적인 후진 농업국

가 상태에 머물렀다. 당시의 산업 구조는 업종의 내용 및 규모 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제조 혹은 가공하는 정도의 경수공업이 주종이었다. 당시의 한국경제는 미국의 무상원조 지원에 힘입어 지원되고 있었으며 세계 최저수준이었다(서상선, 2002). 제1차 '경제개발계획은(1962~66)'에 인력의 부족으로 직업훈련법 제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1960년 사회적 대변혁을 계기로 대외적으로 미국원조가 축소되는 가운데 외환사정까지 악화되어 경제적 운영침체기에 들게 되었다. 한국은 1961년 급하게 경제기획원을 설립하여 단위별 5개년계획을 실행하면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산업개발과 함께 병행하기로 판단했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양한 인력수요가 증가하면서 직업훈련제도 도입 및 강화하는 시점으로 한국은 실업교육과 견습공제도를 두었지만 인력공급이 미흡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는 직업훈련법의 정착기에 들어선다. 1962년에 들어서면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우고 정부주도 적극적 공업화를 추진으로 수출증대로 인한 지속적 산업생산 확보하기에 나서면서 외부자원을 통해 부족한 투자를 메꾸기 시작했다. 1964년 한국은 직업훈련법에 대한 초안이 마련되면서 노동청이 직접적으로 직업훈련사업을 주관하게 되었다(정택수, 2008). 이를 선두로 1967년 1월 직업훈련법이 정식적으로 제정되면서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경제사회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으로 들어서고 국가 주도 기능인력 양성을 본격화 하게 되면서 중직 공공훈련 기관을 설립하였다. 당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연계적으로 직업훈련보조금제도를 도입했다. 보조금제도의 공공훈련의 확대는 정부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사업 내 직업훈련은 정부가 제공하는 예산에 의존하였다(이계우, 2005).

1971년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을 진행하였고 1973년에 중화학공업화정책이

선언되면서 1973년 공업계 고등학교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1974년 민간기업에도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사업 내 직업훈련을 의무화 방침을 확정하고 특별법으로 제정했다(이주호 외, 1992). 이로 인해 1975년은 한국의 노동시장의 전환점이라고 불린다. 1976년에는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특별조치법'을 통합한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하고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적용대상을 300인 이상으로 하양조정하였고, 훈련의무 인원도 근로자의 10%이내에서 매년 기능인력 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였다. 직업훈련 의무가 부과된 기업 중 약 70%가 사업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대신 직업훈련과세를 납부하는 쪽을 택했다(나영선 외, 2012).

1979년 9만 명 이상 사업장 내 직업훈련을 통해 양성•배출 3차 및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의 기능인력 양성훈련에서 공공훈련보다는 사업 내 직업훈련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제 2차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로 정부의 보조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내직업훈련의무제도는 대기업에만 부과되었다. 이에 공공직업훈련 활동은 전과 비슷한 수위에 유지됐지만 직업훈련활동은 급격히 감소되면서 사업 내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들이 사내훈련비에 비하면 훈련분담금을 납부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부터 훈련분담금 납부 방향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이계우, 2005; 181-182).

단위별 5개년 경제개발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87-1991'을 끝으로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 1993-97'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국력이 경제력의 흐름을 인지하고 국제경쟁력이 인적자원에 비롯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산업인력의 효율적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개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나영선 외, 2012).

<표 2-1> 단계별 직업훈련제도의 발전

	직업훈련단계	연도	경제개발계획	경제지표(1인당 소득)	법령제·개정	인력수요변화와 대응전략
고용보험 도입이전	도입 및 정착기	1960년대	제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80달러	직업훈련법 (1976년)	경공업화 진입에 따른 단순기능공 수요증가 → 학교교육을 통한 기능인력 확보에 치중, 직업훈련 제도설계, 직업훈련보조금 제도 도입
		1970년대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화학 공업화 고도성장 도약기)	254 → 1,676달러	직업훈련특별조치법(1974) 직업훈련기본법 및 직업훈련촉진기금법(1976)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기능인력수요증대, 기능인력부족심각 → 이농으로 인한 무기능인력 무제한 공급 한계, 실업고등학교 설치, 공공직업훈련 확대, 훈련의무제도 실시, 훈련분담금제도 도입
	성	1980년대	제5, 6차	1,645	직업훈련기본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설립

	장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율과 경제안정기)	→ 5,418달러	제4차 개정 (1987)	(1982) 고급직업훈련과정신설(기능장과정)
고용보험 도입이후	전환기	1990년대	중성장•저실업기 및 97년 경제위기	6,417→ 9438달러	고용보험법 (1995)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1999)	실업자 사회안전망인 직업훈련
	혁신기	2000년대	글로벌경제 진입, 경제성장률 하락	10,841 → 20,000달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4)	노동시장유연화, 평생직업훈련체계 구축, 취약계층훈련강화

(자료 : 한국의 공공훈련제도의 현황, 성과와 과제, 강순희 표를 사용.)

2) 고용보험 적용 후

<그림 2-1>에서처럼 고용보험 적용 한 후 한국의 변화의 시점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고용보험정책의 도입을 제공한 계기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사회의 시점도 변화의 영향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인식자체도 변화하게 되었다. 인금인상과 인력부족현상, 여성 경제활동참가, 서비스경제화로 한국 노동시장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당시 1988-97년까지 10년간 실업률은 2%에 그쳤고 완전고용을 가져왔지만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이

한국을 민주화의 길로 인도했다(유길상, 2009).

제조업 중심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화를 이루었던 1970-80년대를 기점으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노동시장여건의 기초를 두면서 직업훈련제도를 발전시켰다. 198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직업훈련은 본격적인 성장기에 돌입한다. 노동집약적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게 되고 자동화와 기술고도화의 진행으로 단순기능 인력에 대한 산업계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변화하는 인력수요에 맞춘 훈련 설계•운영을 통해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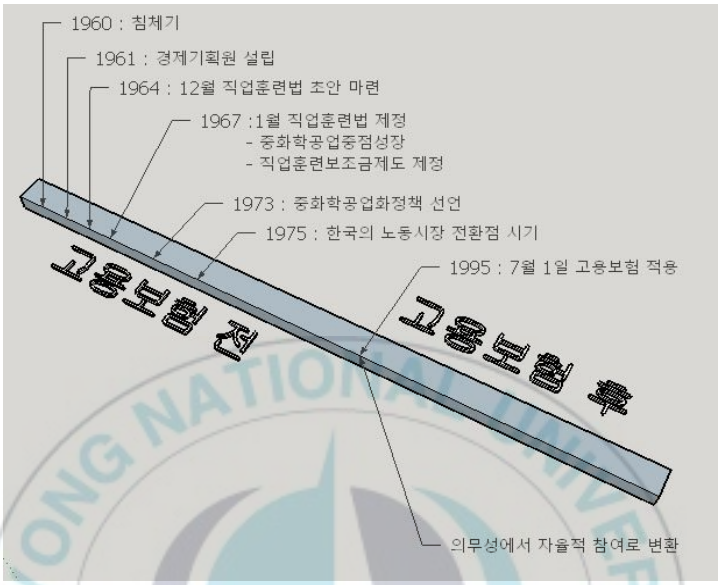
1990년대 중•후반에는 직업훈련제도의 전환기를 맞게 된다. 중성장•저실업의 경제 상황으로 서비스산업화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 소득•학력수준 향상 및 시장경제 원칙 대두로 정부 개입의 한계점을 내비치게 된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발생으로 대량 실업 발생,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직업훈련 수요가 대두 되었다. 이로 인해 기능대학개편을 하고 공공직훈기관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설립했다.

한국의 직업훈련교육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이다. 고용보험정책은 1970년대부터 언급되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정식으로 도입된 시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제도 도입 당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적용범위 대상을 확대하여 1998년 10월 1일 이후에는 4인 이하 사업장 포함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였다(황진회, 2004; 1). 고용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재편하면서 직업훈련의무제도는 폐지되었고, 직업훈련의 중심이 신규기능인력 양성에서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및 근로자 평생직업능력 개발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즉 부분적용 대상에서 전체적 대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에 직업훈련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었던 부분과 선택적 훈련분담금 납부의무에서 벗어나,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환으로 훈련분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훈련비 환급과 지원하는 자율

적 인센티브체계로 개편하게 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실업자훈련정책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과 연계한 직업훈련 실시로 대량실업사태에 대응했다. 1995년에는 고용보험제를 도입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직업훈련제도는 고용보험의 3대 산업의 하나로 통합하면서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관심대상은 실업자에게 집중되었으며 서구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직업훈련제도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실시했다(나영선 외, 2012).

2000년대에 들어서는 혁신기에 접어들면서 저성장, 저고용,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지식정보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산업구조 및 수요자 요구 복잡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주도의 훈련정책에서 민간주도 자율훈련으로 전환했다. 사업주지원 훈련의 지속적 증가 및 재직근로자(비정규직 중심) 향상훈련 확대•강화 등 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특화 지원제도 및 취약계층(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에 대한 직업훈련도 마련하였다. 2004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 확립하였다.

<그림 2-1>한국의 고용보험 전•후



자료 : 나영선.2012『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제도』참고해서 재 구성함.

2.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구조

한국의 기본교육법령 제2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정해 두었다.[7] 직업능력개발사업관련 법령은 <표 2-2>에서 보면 크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숙련기술장려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등이 있으며, 이 중 직업훈련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진 법령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이다(정지선 외,

7) 한국의 교육기본법령, 검색일 2017.4.24.

201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1997년 12월 24일 제정되어 2012년 12월 21일 부로 다시 개정되었다. 이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것으로 훈련시설, 훈련과정 인정, 훈련과정 평가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표 2-3>에서 한국의 제도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구조가 나타나는데 직업교육훈련(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재직자 훈련과 실업자 훈련으로 구분된다. 재직자 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실업자 훈련은 실업자의 취업능력 또는 기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훈련기관에 실업자 훈련을 위탁하거나 실업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재직자 훈련은 소속근로자이거나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 한하는 사업체로 자체훈련시설 또는 위탁훈련기관에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인터넷, 우편), 혼합훈련 등의 방법으로 훈련을 실행한다. 집체훈련의 경우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와 독립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며, 그 대상은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는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1일평균 5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훈련한다.

< 표2-2> 한국의 직업훈련 관련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1973.12.31.제정, 2010.5.31.개정)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교육훈련제도 도입, 검정시설 지원근거 마련, 수탁기관 위탁취소 절차 등 정비, 자격증 대여 알선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등
한국산업인력공단법 (1981.12.31.제정, 2010.6.4.개정)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근거법 - 주용기능 : 훈련지원, 자격검증, 기능장려 등 - 기타 임원, 이사회, 업무지도•감독 등 규정
숙련기술장려법 (1989.4.1.제정, 20105.31.개정)	▸ 숙련기술장려와 숙련기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기능경기대회, 기능올림픽 대회, 계속종사 장려금 지원 등
고용보험법 (1993.12.27.제정, 2010.6.4.개정)	▸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사업주훈련, 재직자훈련, 실업자 훈련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1997.12.24.제정, 2012.12.21.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반에 관한 상항을 규정 - 훈련시설, 훈련과정 인정, 훈련과정 평가 등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고용보험백서.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에서 필자가 재구성.

<표 2-3> 직업능력개발 사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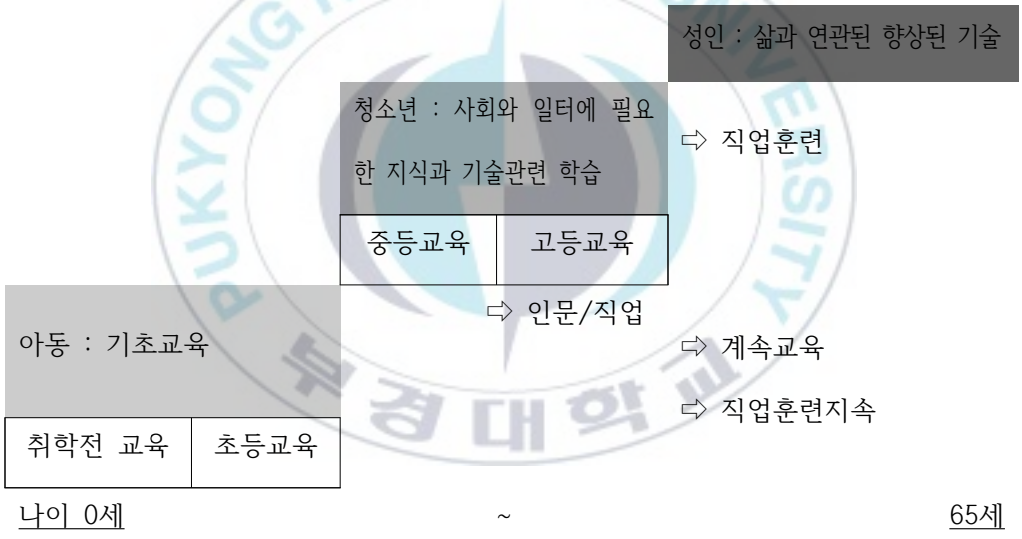
<table>
<tr><th colspan="2">재직자훈련
(향상훈련)</th><th colspan="3">실업자훈련
(양성훈련)</th></tr>
<tr><td>사업주
직업훈련지원</td><td rowspan="3">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근로6자
직업능력개발
훈련)</td><td colspan="2">내일배움카드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td><td rowspan="3">공공훈련(
폴리텍/
한기대)
(산업인력
양성)</td></tr>
<tr><td>중소기업
특화사업</td><td rowspan="2">국가기간
전략사업
직종 훈련
과정</td><td rowspan="2">일반직종
계좌적합
훈련과정</td></tr>
<tr><td>- 일학습병행제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td></tr>
</table>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함.

또한 한국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적용 가능한 최소 연령대를 정하였다. 1977년 공공훈련으로 청주직업훈련원을 위시하여 15개의 공법인 훈련원의 설립과 중학교과정 졸업 후 비진학군 대상으로 기능사 2급 수준의 기능인력을 양성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능인력의 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직업훈련 대상자가 중학교 졸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바뀌었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2년간 훈련을 실시하여 기술공을 양성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한업훈련관리공단의 명칭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개칭되었다(정택

수, 2004).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1999년을 시점으로 9~12년간 무상의무교육을 채택하고 고등학교까지 국가의 의무교육으로 지침하고 있다. 한국의 의무교육은 2002년도부터 2004까지 단계적으로 학년별로 적용하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림 2-2>에서 OECD의 추세에 따른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어 일반 고등교육과정인 인문계열은 등록금을 지불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 즉 공업고등학교는 수업이 무상으로 이루어져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이 연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8)]

<그림 2-2> 생애단계별 정규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역할



자료 : 나영선, 강순희(2012)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직업훈련제도를 토대로 재구성.

8) http://www.archives.go.kr/nex 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160, 국가기록원. 검색일 : 2017년 4월 24일

제2절 한국 - 베트남 직업교육훈련분야 개발협력사례

1. 한국의 베트남 개발협력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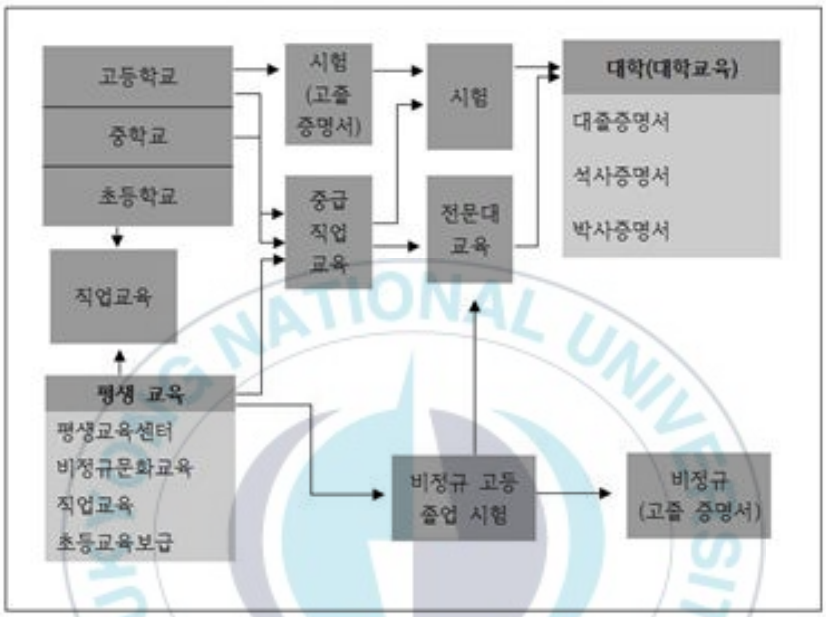
1) 베트남 기본교육체제(VET 중심으로)

베트남의 기본 교육구조와 연결된 직업교육훈련은 1993년 <그림 3-3>과 같은 체제를 갖추었으며, 전국에 기술관련 고등학교는 270개, 직업학교는 242개, 직업훈련센터는 200개가 있다.

<그림 2-3>을 보면 베트남의 기본학제와 직업교육훈련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초등 5년, 중등 4년, 고등 3년으로 5-4-3학제로 되어있다. 기본교육과정 중에 기술과 관련된 학교 및 기관에 진학하거나 기술을 배우려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영 기술학교에서 3년 과정의 직업교육을 받은 후 취업을 한다. 또한 2년에서 2년 반 과정의 기술전문학교 과정 또는 4년 과정의 기술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이들은 졸업 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기술학교에서는 직업교육을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기술교육기관은 2년제 학교로 전기중급대학 등 국영기업체 등에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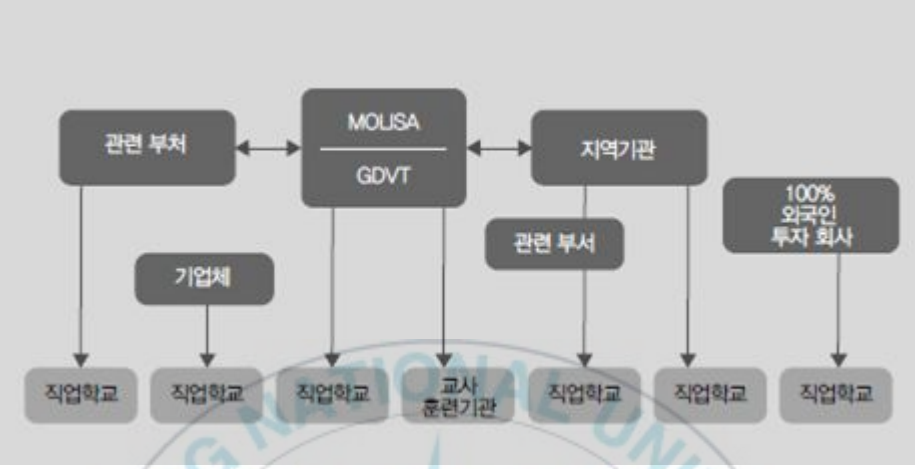
<그림 2-4>와 같이 인문계 과정과 중등직업기술교육 과정은 교육훈련부(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 MOET)에서 담당하며, 기타 직업훈련과정은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rs-Invalid and Social Affairs : MOLISA)에서 담당한다. 즉, MOLISA는 초급직업훈련, 중급직업훈련, 그리고 고등직업훈련을 담당한다면 MOET는 기술(전문)고등학교와 기술(전문)대학 등을 관장한다(김철희 외 2011; 86).

<그림 2-3> 베트남 기본학제 및 직업교육훈련(2013)



출처 : 채재은, 2015『베트남 교육과 공적개발원조』에서 기본교육제도와 연결된 직업교육훈련관련 부분만 필자가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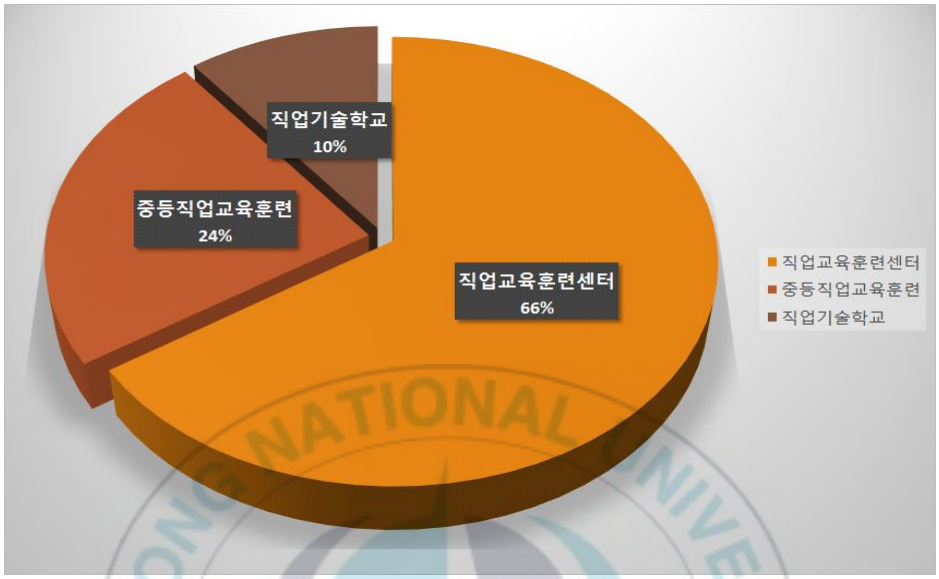
<그림 2-4>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 구조



자료;채재은, 2015『베트남 교육과 공적개발원조』에서 GDVT, InWent and UNESCO-UNEVOC(2009)에서 발췌.

2007년부터 직업훈련법(LAW on Vocational Training)이 실행되면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단계별로 직업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그림 2-5>에서와 같이 2011년 중앙부처 운영기관은 총 124개이고, 지방공공기관 운영기관은 943개, 민관기관은 224개이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업교육훈련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1~20 사회경제개발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숙련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림 2-5>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기관 유형(2011)



자료 : 베트남의 교육분야

2. 한국의 베트남 직업교육분야 개발협력

1) 한국의 베트남 교육부문 투자내역

베트남은 한국이 ODA를 통해 교육원조를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로 교통, 보건, 수자원, 위생, 통신에 이어 교육이 여섯 번째로 규모가 크다(한국수출입은행 2012). <표 2-4>를 보면 한국이 교육투자에 승인한 교육예산은 2013년 기준 9,481만 1,000 달러로 고등교육(전문대학교, 4년제대학교) 지원이 6,691만 8,000달러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훈련 지원은 2,246만 6,000달러(23.7%)로 고등교육 다음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다. 그 외 나머지 교육일반과 기초교육

은 542.7달러로 5.8%에 불과했다.

지원기관별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보면 그 중 KOICA는 12개 사업에 4,755만6,000달러(50.2%)로 가장 많이 지원했으며, KOICA는 교육부분 중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관련 직업교육훈련 비중이 높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서 베트남에 전체 다섯가지 사업에 총 4,690만 달러(49.5%)를 지원하였는데 주로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중등학교 및 대학의 건립 또는 개선사업관련 차관을 지원하였다.

<표 2-4> 한국이 베트남에 직업교육훈련관련 투자금액

직업교육 ODA 지원액		지원기관별 교육분야 ODA 지원액	
구분	지원금(단위 :만달러)	구분	지원금(단위 : 만달러)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2,246.6	KOICA	4,755.6
고등교육	6,691.8	EDCF	4,690.0
기초교육 및 교육일반	542.7	민관협력 (NGO, KOICA)	32.5

자료 :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에서 직업교육훈련관련 자료를 병합활용하여 필자가 구성

2) 한국의 베트남 직업교육사업 지원

한국의 베트남에 가장 대표적인 직업교육훈련사업은 <표 2-5>와 같이 '한•베트남 산업기술학교 지원사업'으로, 학교 건축 및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과 연수생 초청, 교재개발이 종합적으로 지원되었다. 이 사업의 결과물인 한•베트남 산업기술학교는 한국과 베트남 협력의 상징적인 기관으로 1차 지원에 이어 직업기술대학으로의 승격을 위해 2차 지원도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꽝찌 성(Quang Tri Province)

중급직업훈련원 개선사업과 하띤 성(Hà Tinh Province) 중등직업학교, 잘라이 성(Gia Lai Province) 아운파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NGO가 수행하는 한•베트남 직업훈련원 지원사업(한•베트남 청소년문화교류 후원회), 베트남 정해기술학교(투득 기술대학교) 건립사업, 베트남 빈폭 성(Vĩnh Phúc Province) 빈곤아동 영양빵 공급 및 맞춤형 직업훈련사업(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도 이루어졌다.

<표 2-5>를 살펴보면 한국이 그동안 직업교육훈련에 관련 지원사례를 볼 수 있다. 먼저 떠이썬(Tay son) 지역의 중등학교 빈딘 성(Bình Định Province) 학교 건축은 재건축과 기자재를 제공함으로 베트남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월남전 당시 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으로 한국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KOICA에서 1996~97년간 약 25만 달러 지원하였다.

하노이(Hanoi)/꾸이년(Quy Nhon) 직업훈련원 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한국과 베트남 수교 약속사업으로 양국정부가 시행 약정서에 서명함에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의 최초의 베트남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사업은 1994~98년(총 5년)간 베트남 보훈사회부(MOLISA)를 파트너로 수행되었으며 약 5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이 중에 기자재 구입 등 프로젝트 사업비로 총 404억 달러를 지원했다. 또한 관리자, 교사, 학생 등 연수생 초청을 위해 115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학교별로는 하노이(Hanoi) 기술학교와 꾸이년(Quy Nhon) 기술학교에 각각 약 250만 달러를 지원했다(한국국제협력단 2006; 5). 사업 종료 이후에도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KOICA에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2000년에 두 학교에 각각 3만 달러를 지원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06; 845).

한•베 산업기술학교 지원사업은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이 베트마을 공식 방문하여 정상회담에서 응에안 성(Nghệ An Province)직업교육훈련사업 지원을 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1997~2003년간 추진된 1차 사업을 통해 학교건립, 관리자와 교사 초청연수, 자문관 파견, 교과 편성 및 교재 편창비 등이 지원되었다(한국국제협력단 2006; 5). 하노이(Hanoi)/꾸이년(Quy Nhon) 직업교육훈련원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이 사업은 학교 건설에서부터 기자재 제공,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교과편성 및 교재편찬 등을 일괄계약방식(Turn key base type)으로 종합 지원한 특징이 있다(허요 2002; 76).

이 사업에 베트남은 학교 부지를 제공하였고, 응에안 성(Nghệ An Province) 인민위원회와 협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KOICA에서는 사업비로 1997년 1만 달러를 시작으로 2003년까지 약 5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06: 5).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한•베 산업기술학교는 2000년 12월에 개교하였으며, 2006년 기준으로 기계, 전기, 전자, 산업설비, 자동차정비, 정보처리과가 개설되었다. 졸업생들은 호찌민(Ho Chi Minh), 하노이(Hanoi), 하이퐁(Haiphong)의 공업단지와 응에안 성(Nghệ An Province)의 산업체에 취업되었다.(대한상공회의소, 2006).

2006년 한•베 산업기술학교가 직업중등학교(vocational secondary school)에서 직업기술대학(vocational training college)으로 승격을 추진하면서 건축, 기자재 확충, 교사연수, 자문관 파견을 KOICA에 요청하였다(대한상공회의소 2006; 1).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한•베 산업기술학교 2차 사업에서는 KOICA 예산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와 학교의 대응투자가 이루어졌다. KOICA는 실습동(2층) 건축에 93만 달러, 여섯 개 공과 실습기자재와 교육 기자재에 83만 달러, 연수생 초청에 23만 달러, 전문가 파견에 21만 달러를 지원했다. 베트남 정부와 학교는 실습동, 이론 강의실, 부지 및 인프라, 사무실 장비, 교재 등에 167억 3,900만 동과 23억 동을 각각 지원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11; 22).

꽝찌 성(Quang Tri Province) 중급직업훈련원 개선사업은 하노이 남동쪽에서 약

48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꽝찌 성(Quang Tri Province)은 베트남 정부의 2006~2010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2020년 사회경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다양한 분야의 산업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KOICA에서 2011~13년간 총 470만 달러를 지원하여 추진한 '꽝찌 성(Quang Tri Province) 중급직업훈련원 개선사업'은 훈련원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산업 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이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KOICA에서 여섯 개 공과의 실습동과 강의동 및 한•베 정보센터 신축에 200만 달러, 실습기자재 지원에 170만 달러, 전무가 파견(6명)에 53만 달러, 연수생 초청(19명) 39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학교 부지 등을 제공하였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표 2-5>한국의 베트남 직업교육 지원 사업 현황

연도	사업명	지원액 (만달러)	구분	내용	지원기관
1996-97	베트남 빈딘(Bình Định) 성 학교 건축사업	25.4	사업목적	중등교육 기회 확대 및 공업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KOICA
1994-98	하노이/꾸이년 직업훈련 원산업	404.4	사업목적	산업형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KOICA
1997-2003	한•베 산업기술학교 1차 지원산업	499.2	사업목적	베트남의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경제발전 지원	KOICA
2007-08	한•베 산업기술학교 2차	231.3			KOICA
2011-13	꽝찌 성 중급직업훈련원 개선사업 현황	470.0	사업목적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	KOICA

자료 : 채재은, 우명숙(2013) 베트남의 교육분야에서 필자가 관련분야를 토대로 재구성.

제3절 소결 : 한국 직업교육훈련의 변화와 베트남 개발협력의 변화요인

한국은 6.25 전쟁을 겪은 후 발전 가망성을 잃은 나라로 인식되었지만, 세계 최하위에서 상위까지 오르기까지 빠른 발전을 이룩한 나라로 거듭났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직업교육훈련정책이 선진국의 원조와 연구자료의 분석병행이 발전으로 이끌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정부와 기업의 병행운영은 한국이 개도국인 시절 빠른 발전의 계기가 아닐까 싶다. 실제로 정부와 기업의 병행운영은 국민들에게 기술과 삶의 터전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어 경제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정보의 전달과 전략적 경제구도, 선진국의 연구분석은 한국을 빠른 경제발전의 지표를 완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의식은 인간의 자율적 본연의 의식을 고취시켜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데 몫을 더했다. 가망성 없는 나라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주요 원동력은 서로 상응하는 매개체의 연결이 국가에 속하는 국민과 경제발전이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 지원사업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그 중 베트남에게 많은 지원을 하였다. 그 이유는 간단히 설명하면 한국이 베트남 전쟁참전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지원사업 중 특히 기본교육관련 사업과 직업교육훈련 센터 건립 및 교재배부 그리고 교사양성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증설됨에 따라 훈련참가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교육훈련예산 중 직업교육훈련 비율도 4.90%에서 8.16%로 직업교육훈련관련 예산도 기본교육에 비해 미미하지만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된 자본에 비해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었다. 첫째로 사회적인 차별현상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의 희비차이를 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즉 편증(偏憎)[9]하는 경향이 생겨 직업교육훈련을

9) 한쪽만을 지나치게 미워함.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피해 갈 순 없었다. 직업선택에 따른 성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아시아만의 특유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이 현상은 한국 역시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둘째로 한국의 정확한 베트남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건물과 교사양성에는 힘쓴 부분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요인에 접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연구자료에 의하면 보완할 점으로 꼽는 부분 중 하나이다.

미얀마가 이를 토대로 한국의 원조를 받으려면 최소를 가지고 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효율적 기대효과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베트남의 원조사례를 가지고 장점인 요인보다는 단점의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례가 되진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제3장 미얀마 직업교육훈련분야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장에서는 미얀마의 직업교육훈련이 구성방식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열하였다. 미얀마의 직업교육훈련의 형태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제점을 토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방향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제1절 미얀마 정치변동과 경제현황

1. 미얀마 정치적 변동

미얀마의 정치적 변동을 살펴보면 1945년 2차 대전 이후 아웅산 수지(Aung San Su Kyi)여사의 아버지인 아웅산(Aung San) 장군을 중심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지만, 1947년 7월 독립영웅 아웅산장군이 암살되면서 미얀마는 암흑기로 접어 든다. 당시 전세계는 냉전시대의 이념 분쟁 속에, 1962년 3월 군부에 속한 엘리트세력을 중심으로 육군 총사령관인 네윈(Ne Win)장군의 쿠데타로 '버마식 사회주의(Burmese way to Socialism)' 체제를 이념으로 도입하게 된다. 이것은 미얀마 국민들을 통제 속으로 내몰게 되는 시점이 되었다. 군사정권에 불만이 커진 미얀마 국민들(특히 대학생들)이 아웅산 수지 여사를 중축으로 1988년 '양곤의 봄', 또는 '8888항쟁'[10] 이라는 반정부 민주화 시위로 네윈의 퇴진을 이끌었다. 하지만 같은 해 또 다른 군부세력인 딴 슈웨(Than shwe) 장군의 쿠데타로 미얀마는 1992년부

터 2011년 4월까지 '신군부'정권에 놓이게 된다. 이전 정권과는 달리 대외교역 및 1988년 외국인 투자활성화법 도입을 시도 했지만 뒤에는 정치 퇴행적인 모습을 가졌다. 정치적 비대칭은 대외관계악화 및 경제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미얀마의 대외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된 시점은 2011년 3월 30일, 군정통기구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가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해체한 시점부터이다. 2012년 4월 보궐선거는 아웅산 수지여사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은 제제 완화의 시작으로 대외관계는 급속히 변화를 맞았다.

2015년 11월 8일 미얀마는 총선을 통해 '민주화 중심의 경제발전' 슬로건을 건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동맹당(National League for Democracrerey, NLD)이 선출직 491석 중 59%를 차지하여 390석(상원 135석, 하원 255석)을 차지하며 역사상 최초로 집권여당이 되었다. 2016년 2월 1일 아웅산 수지 여사의 최측근 틴쩌(Htin Kyaw)의 미얀마 9대 대통령의 당선은 52년만의 새 문민정부 내각이 구성되었다.

2. 미얀마 산업과 경제적 구조

미얀마의 산업구조는 노동집약적 형태로 서비스업이 41%, 농업 36%, 제조업 22%

---

10) 양곤의 봄 또는 8888 항쟁은 버마(현 미얀마)에서 1988년 8월 8일에 랑군(양곤)의 대학생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반군부 민중항쟁이다.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됐으나, 국가평화발전위원회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새로운 군부의 진압으로 시민, 대학생, 승려 등을 포함 수천 명이 희생됐다. 결국 8888 민중항쟁은 1988년 9월 18일 종료됐다.

등으로 구성되며, 2013년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제 완화 이후 경제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8%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했다. 제조업 부분은 아직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6).

최근 미얀마의 경제는 <표 3-1>과 같이 매년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원 및 인프라 부문의 외국인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당분간 이러한 성장세 지속이 전망된다. 1988년 시장경제 도입 이후에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다소 남아 있었으나, 2011년 민선정부 이후 8%대 경제성장률을 실현하였다. 2015년에는 대규모 홍수로 인한 재해와 쌀 수출 감소 등으로 실질 성장세가 7%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6년에 그간 기업환경 개선 노력과 평화적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 확대로 약 8.6% 성장이 예상되며 당분간 이러한 높은 성장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자본채와 원자재 수입액 증가폭이 천연가스 수출, 관광 수익 증가폭을 상쇄함에 따라 2015년 9.0%를 기록하였다.

<표 3-1> 미얀마 주요경제 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경제	GDP		억달러	556	567	631	658	713
	1인당 GDP	명목가격	달러	1,100	1,112	1,228	1,269	1,364
		PPP	달러	4,263	4,657	5,101	5,469	5,953
	경제성장률		%	7.3	8.4	8.5	7.0	8.6
	국내총투자		%	18.0	22.9	25.5	25.2	26.1
	실업률		%	4.0	4.0	4.0	4.0	4.0
	소비자물가상승률		%	2.8	5.7	5.9	11.5	9.6
대외거래	경상수지		백만달러	-2,322	-2,960	-3,851	-5,867	-5,895
	FDI 순유입		백만달러	1,334	2,555	-	-	-
	외완보유액		백만달러	6,977	8,266	8,714	9,404	9,98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세계국가편람 2016)

미얀마의 신정부 출현은 공식 경제정책발표회를 거쳐 '민족화합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언급 했다. 이번 정책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직업교육훈련제도를 보강하려는 가능성이 예측된다. <표 3-2>에서 보면 본문과 관련된 인적자원개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환경개선, 외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중점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미얀마 경제개발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2-16) 및 차후 5개년 계획을 수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2011년 신정부 출범 직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1/12 ~ 2015/16)을 수립하여 연평균 10.5%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수출입, 오일&가스 개발 확대, 산업공단 및 경제특구 조성을 중점 분야로 삼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을 위해서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11)]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11) 국가개발계획 명칭 : 경제개발 5개년(2012~2016) 계획

<표 3-2> 미얀마 경제정책 주요 내용

	경제 정책	세부 내용
1	인적자원 개발	▶ 전국에 학교, 학원 신설 및 개선 ▶ 신정부 출범 이후, 적용하고 있는 핸드폰 통화료 세금을 학교 설립 자본으로 활용 ▶ 해외유학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2	일자리 창출	▶ 해외 거주 노동자들을 위한 국내 일자리 창출
3	중소기업 지원 및 FDI 환경 개선	▶ 창업 지원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숙련된 노동력 제공 ▶ 노동법, 투자법 등 개선
4	외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 빈곤 탈출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아세안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비즈니스 관계 구축

(자료 : KOTRA, 2016『2017 미얀마 진출전략』)

제2절 미얀마 직업교육훈련(VET)의 현황과 문제점

1.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의 역사적 배경

미얀마의 기술교육훈련(VET)은 1971년 3월 15일 정부 주도하에 교육부 산하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술교육훈련의 목적은 미얀마 빈곤감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숙련된 기술자를 배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년들에게 자율적으로 원하는 기술과 취미로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숙련노동자들은 고등교육보다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미얀마는 전문기관을 두어 싱가폴 폴리텍 2년제 전문대학, 오스트레일리아의 '더 나은 교육과 기술'(Technical and Futher Education(TAFE)) 학교에 미얀마 청년들이 정규고등교육을 거쳐 이 과정을 밟는 시기가 한 세기를 거쳐 진행되었다.

하지만 잦은 정권교체와 군부정권의 부패로 인해 법이 수시로 바뀌게 되고 이 기술교육도 상황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술교육에 대한 학생들과 부모의 인식이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바뀌게 되면서 기술교육 담당부서가 교육부 산하에서 1996년부터 과학부로 옮기게 되었다. 이때부터 TVET교육이 신빙성을 잃게 되어 사라지게 되었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기술 관련 공업고등학교와 대학이 미얀마 전역에 6개만 남게 되었다. 이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질적인 면도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배우는 학생들도 의미를 잃게 되었고 점차 지속성을 잃게 되면서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2016년 아웅산수지 여사는 TVET Forum에서 TVET교육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 취미와 기술을 연관지어 다시 이 기관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 정권을 만드는데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다시 TVET교육을 다시 재정립을 하는 것이 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12)]

12) 미얀마 TVET. http://tvetmyanmar.org/articles/(검색일 : 2016년 8월 13일)

2.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의 법 제정과 최근 운영현황

미얀마의 직업교육훈련법은 2014년 9월 30일 제정되었다. 이 법의 21조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졸업한자는 기본기술교육과정의 직업교육부터 가능하며, 중학교를 졸업한 자는 중등기술교육의 직업교육이 가능하다. 2016년 7월 31일 고등학교 졸업 후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적합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조항이 추가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은 단•장기간 대학의 학습과정단계의 기술교육을 단계별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정부기관과 사립기관의 협력에 준한 학교는 남녀의 구분과 학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피교육자의 기회는 동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2조에는 관련부서들은 21조에 해당 관련법 의거하여 교육레벨에 맞는 교과서 및 과정기간을 책정해야 하고, 대학의 학습과정단계를 수료하면 해당 수료증을 학원의 교육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23조에는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각 해당 기관은 법에 국한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건립 목적에 맞게 상응해야한다. 미얀마 TVET이 법에 제정되면서 문맹퇴치율을 낮추기 위해 무료로 자국어교육을 교육이수율이 낮은 지역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7년 3월 교육부장관 묘떼인지 박사(Dr. Myo Thein Gyi)는 교육부에서 국립기술고등학교와 기술과학대학이 총 59개 건립된 후, 2000명의 교육자들과 19000명의 미교육자들 대상으로 2016년 1년 간 직업교육훈련 운영결과에 대해 언급했었다.

숙련노동자를 배출하기 위해 냐웅슈웨이 직업교육학원(NVTI : National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과 싱가폴과 미얀마의 협력관계의 운영기관인 싱가포르•미 직업교육훈련(SMVTI : Singapore and Myanmar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에서는 기본직업교육훈련의 단기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의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인 “8888운동”으로 양곤 인세이(Insein) 지역에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당시 정권에 의해 그간 정부로부터 제제를 받아 폐쇄되었던 직업교육훈련학교의 제제를 풀면서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정부과학기술학교(GTI :Government Technical Institute)로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양곤에서 보통 학원형태로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추세이다.[13)]

3. 미얀마 직업교육훈련(2016~21년)

최근 미얀마는 기술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이 성공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2016년 7월 30일 새로운 국가교육전략 정책으로 ‘2016~21년 직업교육훈련’을 공표했다. 이 정책의 취지는 국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늘리고 빈곤율은 줄이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목적에 해당하는 숙련된 기술자들을 배출하는 것이다. 기본교육과정과 숙련기술 교육과정은 기존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는 것보다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많은 지원이 가도록 설정해 놓았다.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대상은 이것에 관심이 있거나, 생계문제로 기본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거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할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이 있다. 장애인들 또한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것은 현재 대두되어 있는 미얀마의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함과 동

---

13) 미얀마 알린신문. 미얀마 교육부 홈페이지,“National Education Strategic Plan 2016-21” http://www.moe.gov.mm (검색일 : 2017년 4월 2일)

시에 나라경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취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연계로 사업자가 필요한 기술자를 보충함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부분이 조화를 이룬다면 사회 및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지역 해당 부처들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아래 <그림 3-1>에서는 미얀마의 기술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의 관련된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기회와 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볼 수 있다.

<그림 3-1>과 같이 미얀마는 기본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이 있으며, TVET 과정은 각각 이와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통 기본적으로 초등교육단계에서 중등교육단계로 진학하지 못할 시에 단기교육이 가능하며 취업을 하거나 취업 도중 시험을 거쳐 고등교육을 받고 기술고등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치고 고등교육을 받지 않고 기술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술고등교육에서 시험을 쳐서 단기 교육을 받고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단기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면 바로 취업이 가능하며 시험을 거쳐 기술교육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기관에서 시험을 치고 난 후에 평생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고 시험을 거쳐 고등교육을 받고 나서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등교육의 경우 만일 중퇴를 하게 된다면 초등교육단계처럼 단기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다. 그 외에는 앞서 말한 초등교육단계와 동일한 구조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초•중교육과정과는 다르게 바로 단기교육에 임할 수 있고 후에 취업하거나, 시험을 치고 취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아니면 기술교육기관에 들어가 시험을 거쳐 고등교육을 받거나, 취업하고 시험을 거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과정을 마쳐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과정은 반드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자율참여 직업교육훈련 기관도 있다. 이곳은 단계별로 레벨 1부터 3까지 정규과정을 밟아야 하고 3단계에서는 취업이 가능하다. 4단계를 마치고 취업

을 하거나 다른 진급 과정의 시험을 밟은 뒤 고등교육을 받기 전에 선교육이란 것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고등교육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선교육을 통해 고등교육을 대비 한 것으로 교육을 이수하는데 있어 하나의 과정을 밟기 위함이다. '2016~21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현재 실행 중에 있다.

또한 미얀마는 전략적 2016~21년 직업교육훈련 종료 후 실행 목표와 경과지표를 예측하였다. <표 3-3>과 같이 미얀마는 우선 첫째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장애인, 빈곤•취약계층)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21년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이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 그리고 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시외곽 및 시골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늘렸으며, 교육을 진행 시 목적별 단계적으로 연속성을 지니도록 제정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미교육자들은 최소한의 보조금과 교육우수자에게는 작게나마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기획했다. 해당관련 학과를 졸업 후에 교육의 종료가 아닌 자신이 원한다면 더 나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방식으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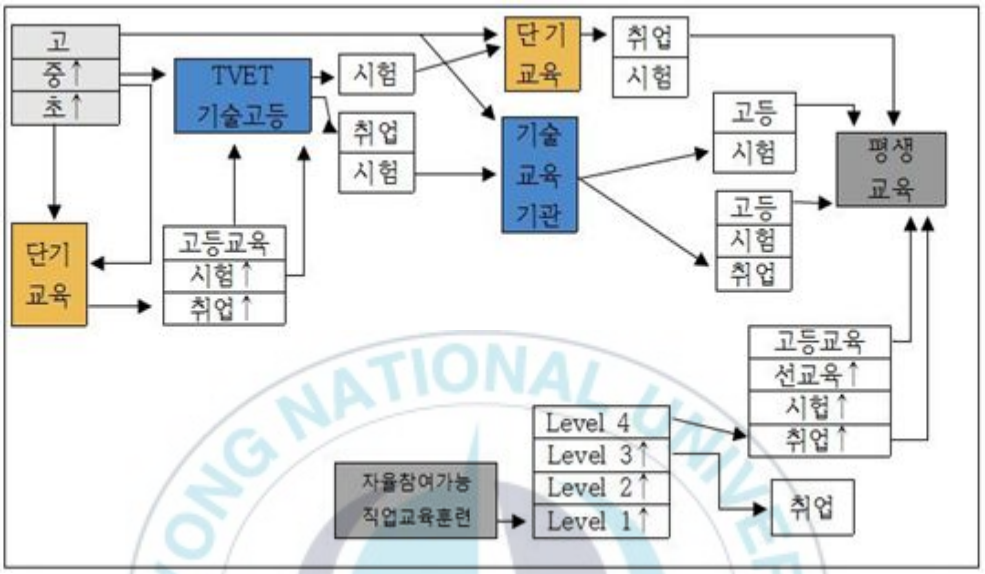
미얀마 교육부에서는 첫 번째 전략을 실행한 후 도시에서 통학하는 학생 수와 마을에서 통학하는 학생 수의 비율, 이 교육에 단계별 학습에 참여한 졸업생 수, 보조금과 장학금 지급한 사람 비율, 단계별 고등교육으로 진학한 사람 수의 비율을 측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6~21년 프로그램의 훈련 품질을 향상 및 개선을 목표로 두었다. 이는 취업할 때 해당 관련 기술이 회사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술인지에 대한 효율성에 접목시키고 있다. 즉 필요한 기술을 관련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자들의 교육 품질과 기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교사들과 직원들의 일의 능률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전 직업교사들은 해당기술 기준 전문성을 겸비하도록

교사양성에 힘을 쓰고 있다. 교사가 미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배우고 싶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해당교사의 전문성을 겸비하여 교사능력의 표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교육자들이 교육을 받기위해 필요한 교과서와 교육 이수 중 실습하기 위한 기자재 제공 및 현장 실습장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기관 수료하고 나서 미교육자들이 전문기술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이 기관이 교육을 이행하는 학원으로써 능력이 보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성과 지표는 계획대로 학원에서 가르치는 비율, 가르칠 때 강의와 관련된 전문성을 겸비하여 가르칠 수 있는 교사 비율, 미교육자의 졸업생 수, 해당관련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한 학생 수 등이 설정되었다.

세 번째 전략으로 2016~21 프로그램의 관리와 보완을 목표로 두었다. 정부 부서들과 개인사업체가 협력적 운영체계를 갖추어 사회발전 실현을 실현한다는 취지가 들어 있다. 이 운용자금은 계획에 맞게 통용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부에서 더 효과적 관리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관련 공무원들과 사업자들은 사업계획과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나온 연구자료들을 활용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정보자료 관리 시스템을 향상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요령을 활성화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한다. 정부와 개인사업체의 통합적 운영을 바탕으로 사업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함으로 기회와 품질을 향상을 꾀해야 한다.

<그림 3-1> 기술•직업교육훈련법 (TVET Law) 경로



2016~21년(5개년) 기술교육과 직업교육훈련 지도 2017년 4월 2일(NESP:National Education Strategic Plan)에서 자료를 필자가 번역함.

<표 3-3> 2016~21년 직업교육훈련 전략 예측

전략1	목적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원하는 자(장애인, 기회가 적은 사람 등 포함)에게 폭 넓은 기회제공
	희망목표	-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 제공 - 도시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기회제공 - 연속적•단계적 학습 진행. - 지원금과 장학금 제도 이행(교육이수 시) - 단계적 (기본~고등)교육의 업그레이드 방식 운영

	지표	- 도시에서 다니는 학생과 마을에서 다니는 학생들 비율 - 이 교육에 단계별 학습에 참여한 졸업생 수 - 지원금과 장학금 지급한 사람 수 - 이 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진학한 사람 수
전략2	목적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취업과 관련된 기술교육 습득
	희망목표	- 해당 교사들과 직원들의 일 능률성 개선 - 전 직업교사는 전문적 기준에 따라 교사양성훈련 필수로 이수하여 관련 전문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능력의 표준 활성화 -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와 기자재의 제작 및 제공 - 관련 기관들은 품질보증이 명확해야하며 해당 기관 수료 후 관련전문기술을 습득 가능해야 함.
	지표	- 계획대로 학원들을 가르치는 비율 - 가르칠 때 강의와 관련된 전문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비율 - 피교육자의 품질을 향상 가능한 사람 비율 - 해당관련 취업한 학생 비율
전략3	목적	직업교육훈련 관련 관리 시스템 향상
	희망목표	**- 정부 부서들과 개인사업체가 협력운영체계를 갖추어 사회발전 실현** **- 운용자금은 계획에 맞게 통용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부에서 더 효과적 관리 시스템** **- 정보자료 관리시스템을 향상하여 분석 및 보완 단계 자료 보관** **- 관련 보고서 작성요령의 활성화** **- 해당 관련 부서와 사업자들은 사업계획과 정책을 더 강화하기위해 관련 연구자**

		료들을 장•단점 분석 후 활용 - 정부와 개인사업체의 통합적 운영을 바탕으로 사업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함으로 기회와 품질을 향상

자료 : http://www.moe.gov.mm.2017.04.02. 미얀마 교육부에서 필자가 번역하여 표로 재구성함.

제3절 소결 :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

'2016~21년 직업교육훈련'정책을 현재 실행 중에 있지만 연목구어(緣木求魚)[14]가 아닐까 싶다. 즉, 아직 제대로 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형평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된다. 미얀마는 그동안 버마식 사회주의의 폐해로 인해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적을뿐더러 그와 관련된 연구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정책의 실행을 통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겠지만 제대로 된 준비없는 실행은 무의미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보통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초창기의 직업교육훈련 역시 경제발전에 관여하며 사람들의 행복과도 연결시켜주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포착하여 미얀마가 어떠한 문제점이 거론되는지 보고자 한다.

첫째, 미얀마는 원조의 경험은 있지만 특별하게 발전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미얀마는 버마식 사회주의가 장기간 집권하는 탓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14) 나무에 인연(因緣)하여 물고기를 구(求)한다」라는 뜻으로,

①목적(目的)이나 수단(手段)이 일치(一致)하지 않아 성공(成功)이 불가능(不可能)함

②또는 허술한 계책(計策)으로 큰 일을 도모(圖謀)함

않은 나라이다. 단절된 정책으로 인해 다른 나라와 교류가 적어 원조의 경험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현저히 낮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관련 보고서나 논문 등의 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민주주의 이전에 한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것은 따가야지역 직업교육훈련 센터를 지어준게 전부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버마식 사회주의도 한 몫을 했지만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편증한 시각적인 문제도 제외할 순 없다. 앞서 제기된 미얀마의 역사부분을 보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편증된 시각에 대해 언급하였다.

넷째, 직업교육훈련 센터가 있지만 제대로 된 홍보 효과가 없었으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다. 특히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정규교육 과정을 밟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으며, 이마저도 기숙사에 돈을 내고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다섯째, 직업교육훈련센터가 많지 않은 상태였으며, 타지역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직업교육훈련센터와 기업 연계성이 많이 없어 실무 경험을 토대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졸업을 한다 하여도 관련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적다. 가난하고 타지역에 거주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육마저 사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소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면 우선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원조의 경험과 직업훈련관련 연구결과를 먼저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내놓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 나머지 문제점들은 추후에 자동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의해 고쳐진다고 하지만 우선 중추적인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4장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의 개선

제 4장에서는 한국이 지원한 직업교육훈련관련 된 미얀마 따가야 지역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민주주의로 전환되기 전에 실행되었던 지원사업이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원부분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며 교육을 받고 있는 미얀마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의 방향에 대해 개개인이 추구하는 의견을 종합하여 나열하였다.

제1절 한국의 따가야 직업교육훈련 사업

한국이 미얀마에 지원했을 때 2007-2009 사업으로 미얀마는 아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다. 당시 따가야 지역에 직업교육훈련 센터가 건립된 이유는 미얀마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 기업의 기술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에 종사 중인 근로자들의 숙련향상을 위한 재훈련이 필요에 따라 한국에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되었다. 당시 <표 4-1>를 보면 사업에 따른 개요를 살펴볼 수 있다. 2007-2009년 약 3년에 거쳐 미얀마 직업훈련 역량 강화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실시되었다. 사업목적은 미얀마 직업훈련분야 시설기반 구축 및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및 고용증대로 시작했다. 수혜층은 교육생, 훈련교원, 직원, 관련 산업체로 지정되었다(김철희 외, 2013).

< 표 4-1> 미얀마 따가야 직업훈련원 지원 개요

사업명	국문	미얀마 직업훈련 역량 강화사업	
	영문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Myanmar	
사업규모/기간		230만 달러 / 2007 -2009 (3년)	
사업목적		미얀마 직업훈련분야 시설기반 구축 및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및 고용증대	
사업지역		미얀마의 신 행정수도인 네피도(Nayphytaw) 근처 따가야(Thagaya) 지역	
수혜그룹		교육생, 훈련교원, 직원, 관련 산업체 등	
사업내용		건축 설계 및 감리	$ 176,000
		실습기자재 지원	$ 1,323,000
		초청 연수	$ 373,000
		전문가 파견	$ 284,000
		기타	$ 144,000
사업시행기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대한상공회의소 (PMC)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2007). 미얀마 직업훈련 역량강화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p.10

1. 운영상태의 문제점

직업교육훈련의 운영상황의 경우 총 1,100시간, 40주 훈련으로 실시했으며 건축설계 및 감리, 실습기자재 지원 등이 한국에서 지원되어 설비되었지만 그 외 고장으로 인한 수리는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1년)은 기술습득으로 이루어졌다. 건립사업은 확고하게 진행되었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의 표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과정에서 교사 자체 혹은 공여국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고, 교육시수는 일부 변경 가능, 훈련원에서 산업부에 신청, 승인 후 변경, 교육과정을 크게 변경하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조가 설립되고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지만 외부 전문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되는 시스템은 없어 변경되지 않았다. EPS 시험응시 및 한국어 교육지원 등 훈련원 이수자의 한국취업과 연계도 가능한 방향으로 되었다.

이러한 운영상태에도 당시 문제점이 발견 되었는데 <표 4-2>를 보면 전반적으로 기술발전에 부응하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취업률은 공무원, 공무원 자녀의 입학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따가야 직업훈련원은 네피도와 1시간, 양곤으로부터 5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보아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 또한 산업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등으로 부처별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어 높은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소모품과 장비는 4~5년 전 사용되어 낙후된 것으로 계속 교육이 진행되어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미얀마는 교수법이 없어 교사선발, 훈련 등 주관 부처(기관)확인, 공무원 선발, 교사로 활용하여 전문성 및 체계적인 교사훈련이 전무하다. 인근에 공단이 3개 내외로 산학협력 및 취업이 용이하지 않았다(김희철 외, 2013).

<표 4-2> 사업종료 후 문제점 제기

전기과	컴퓨터 과장 수리, 모바일 기술을 등 습득이 필요했다.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실정.
컴퓨터 설계과	다른 교사 이동시 추가적으로 교육훈련과 CAD 등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기술 습득이 필요.
기계	장비 미 기술습득의 업그레이드와 추가 연수 또는 전문가 파견, 공업부에서 소모품과 소비에 따른 지원이 제한적. 밀링기계 1대에 실습자 30명이 실습하며, CNC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손실 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 외 기타	프린트를 최신으로 제공했으나, 토너를 구하지 못해 사용불가. 다른 지훈원에 비해 장비 및 소모품 지원 부족, 전문가 파견 시 기관운영 전문가보다 특정 전공분야(공과전문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개도국 직업훈련 지원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p.91

제2절 산업연수생 조사를 통한 직업교육훈련센터 수요분석

1. 조사 개요

이 설문조사는 한국에 거주하며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의 실제적인 수요와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미얀마 현지인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현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현

지에는 발전이 미진한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수요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적합하도록 한국과의 개발협력 부분에 대해 결부될 수 있게 한국에 거주하며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현지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산업연수생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나아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지니는 경험은 단점과 장점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4-3>에서처럼 한국 울산공업단지에서 3개월 기술교육과정을 진행하던 미얀마 현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울산공업단지에서 미얀마 2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교육과정은 Painting and Blasting 회사와 United co.ltd 회사가 파견되어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Painting and Blasting 회사는 선박도색회사로 관련기술에 대해 교육을 받기 위해 왔으며 대표 외 19명으로 진행되었다. United co.ltd 회사는 용접과 도색에 관여하는 회사로 CO2[15]용접에 대해 교육을 받기 위해 왔으며 대표 외 19명으로 구성되어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은 미얀마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으로 그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미얀마 직업교육훈련

---

15) CO2 용접 : FCAW(Flux Cored Arc Welding) 불활성 가스 대신 저렴한 CO2가스를 쉴드가스로 이용한다. 와이어 내부에 Si나 Mn등의 탈산제(flux)가 포함돼 있어 용접을 하면 CO2와 탈산제가 결합해 슬러그가 되어 표면으로 떠 오른다 피복 아크 용접과 비교할 때 장비가 복잡하고 CO2가스 공급이 필요하지만 용접 속도가 빠르고[7] 치밀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재질이 철이여만 용접이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용접 기구 자체의 부피와 무게가 꽤 나가는 편이라 휴대가 불편하다. 조선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접.

방향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특히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부분만 간추려 나열하였고 미얀마 직업교육 훈련의 제도개선에 시급한 기술적 요인과 더불어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방향, 교육이수기간 및 이수시간, 교육 이수 중 지원받고 싶은 지원금액, 교육기관의 지역 선택적 희망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방식은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및 설문조사 교부방식을 채택하였다.[16)]

<표 4-3> 산업연수생 설문조사

부서	미얀마 근무지	주업무	교육(한국)	산업연수생
Painting and Blasting	양곤	용접과 도색	선박도색	P회사 대표와 근로자 19명
United co.ltd	양곤	용접과 도색	CO2용접	U회사 대표와 근로자 19명

자료: 모지역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

2. 조사내용

조사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직업교육훈련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정규교육을 일정기간이상 마치지 못하거나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 더 나아가 고령자들에게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16) 본문에 등장하는 미얀마 회사명은 가명이다.

제공한다. 또한 각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이를 책임지고 국민과 경제를 동시에 병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가진다. 이 정책이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직업교육훈련은 미얀마에 필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설문대상인 미얀마 현지인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점을 토대로 의견을 반영하여,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림 4-1>은 설문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그래프를 구성한 것이다. 우선 첫째로, 미얀마에서 가장 시급한 기술요인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Painting and blasting회사와 United co.ltd회사 양쪽 모두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Painting and blasting 회사 대표는 기계설비 및 가공기술 즉 공업기술부문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대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들 대부분 공업기술이 시급하다고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는 컴퓨터 공학, 전기발전소 및 기술, 농업의 활성화를 들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농업과 공업이 병행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United co.ltd 회사는 좀 더 자세하게 접근하였는데 즉, 공업관련기술 중에서도 용접기술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여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습득중인 CO2 용접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섬세한 부분을 차지하기엔 역부족이어서 TIG용접[17] 기술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CO2에 비해 습득기간이 다소 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양가족들을 챙기는 인원들이 많기에 한국에서

17) TIG용접 : MIG용접과 비슷하지만, 선재를 공급하는게 아니라 토치 전극이 텅스텐으로 되어있어 아크만 발생시키고, 그 아크에 따로 선재를 공급해 용접하는 방식. 용접 속도가 느리지만 변형이 적은 장점이 있다.[9] 용접 중에서 수중용접 다음으로 배우기 어려운 기술이다. 아크나 CO2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성과가 나오지만 TIG는 어지간한 재능이 없으면 기본은 하겠지만, A급이 되기 힘든 기술이다.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기술만 배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표현하였다. 근로자 대부분은 공업기술이 필요하다고 조사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은 에너지 산업 즉 전기기술이 너무 부족하여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과 금융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금시세의 불안정한 시세, 미얀마 높은 기후와 중량초과되는 차량들로 인한 도로의 취약점, 타국에서 배운기술이 현지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 미얀마에서 기술을 배우며 현실적으로 취득한 기술이 현지에서도 병행적 운용을 추가 제시되었다. 그 외 근로자들은 기술의 활용도와 관리기술 그리고 경영기술에 관해 다양하게 접근하였다.

두 번째로 시급한 기술과 연관되는 미얀마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활용도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대부분이 공업관련분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분야의 교육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 접근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활용도를 조사함으로써 교육방식에 관한 의미도 파악했다. Painting and blasting 회사는 모두 공업관련기술분야를 제일 시급하며 조속히 진행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업관련기술분야 중 CNC가공기술, 운용 및 수리술, 가공 용접, Software & Hardware, 자동차 정비기술의 과정들이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성과가 나왔다.

United co.ltd회사 역시 대부분이 공업관련기술분야를 선택했으며 이 중에서도 작게는 자동차 수리기술, 전기시설 구축 및 관리기술, 건축공학, 크게는 용접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외에는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회계, 사업관리와 호텔의 활성화에 대해 답하였다. 덧붙여 미얀마에는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 전체적인 지속성을 유지하기엔 많은 무리가 있으며, 사회주의적 사업형태가 없잖아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새로운 사업을 구축하기엔 무리가 따라 자율적 사업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공업관련분야 중 용접은 공업부분을 제외하고도 모든 부분에서 많이 필요한 기술이다. 부피가 큰 중량물에만 접합할 때 쓰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없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부분들은 역시 미얀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었다. CNC가공기술[18]은 용접을 거쳐 가공하거나 아니면 더 작은 부품들을 더 섬세하게 제작가능하다. 그리고 전기기술이 부족하여 전력부분에도 보면 아직 30% 전력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에도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24시간 풀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기술 또한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도로기술이 취약하여 중량초과 차량으로 인한 손실, 미얀마 기후에 따른 손실, 더불어 손상부분에 대한 조

---

18) CNC가공기술 : 컴퓨터 수치제어(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한 수치제어 공작기계 및 이를 응용한 공작 전반을 일컫는다. 특히 CNC 밀링에 공구를 자동으로 교체 해주는 장비인 ATC(Automatic Tool Changer)까지 포함되면 머시닝센터라 불리운다. 보통 ATC없는 CNC밀링은 NC밀링이라 부른다.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

범용기계는 사람의 손으로 공작물을 가공하기 때문에 정밀부품을 대량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CNC는 컴퓨터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로 절삭구의 움직임을 자동제어하기 때문에 정밀부품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다. 또한 절삭공구가 입체적인 경로로 이송이 되면서 극미세 오차범위 안에서 매끄럽게 곡면 부품을 가공해주기 때문에 기존방식과는 가공물의 수준이 전혀 다르다. 거의 예술품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 최초의 CNC 머신이 개발된 것은 1952년 미국 MIT에서이며, 이후 수십 년 가까이 미국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치 미흡 등을 볼 수 있다. 경제 활성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도로가 아닐까 싶다. 도로는 수•출입을 관장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이며, 또한 더 빨리 이동하는 운송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도로의 열악한 환경은 관련된 일들이 순환하는데 있어 차질을 빚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이 공업관련분야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이수 기간 및 시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Painting and blasting 회사는 3개월이 시간상으로 적당하다고 하였으며, 그 외에는 각각 짧게는 2개월, 적당한 수준은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2년의 기간을 답하였다. 이수시간의 경우 대부분이 8시간이 적당하다고 답변했으며, 그 외에는 각각 7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정도 조사결과가 나왔다.

United co.ltd회사에서는 대부분이 3개월을 선택하였고 그 외는 짧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 적당하다고 답하였다. 이수시간에 관하여서는 대부분이 8시간이 최적의 시간으로 공간적으로 구애(拘礙) 받지 않는 시간대라고 답하였다. 그 외에는 7시간이 적당하다고 답하였다.

이수기간과 시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을 바탕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참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3개월과 8시간을 선택하였다. 또 다르게는 교육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염두해야하며, 부양가족책임까지 많은 의견들이 오고갔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기간과 시간을 선택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이라는게 한번 끊기면 다시 연결시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한국처럼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옵션 선택제로 나아가야 한다. 즉 상품이 여러개 존재하듯이 직업교육훈련분야에도 다양한 선택적 정책을 선택함으로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덧붙여 한국처럼 일을 하는 중에도 기업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교육을 적극 추천하여 추진한다면 더

나은 효과를 입증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교육기간 이수 중 원하는 지원금에 대해 조사하였다. 지원금에 관한 조사는 교육을 받음으로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감소하는 차원에서 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의 경우 실제 지원금을 30만원에서부터 차비를 포함한 4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한국의 월급이 대략 18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40만원이라는 돈이 평범한 사람이 한 달을 지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돈이지만 교육을 이수받는 동시에 돈을 받게 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준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Painting and blasting 회사는 대부분이 10만원이 미얀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이라고 답하였으며 그 외에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이 적당한 적정선이라고 답하였다. United co.ltd 회사에서는 대부분이 30만원이 적당한 선이라고 했으며, 두 번째로는 20만원이 적당하다고 했다. 그 외에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이 적당하다고 표현하였다. 대부분이 10만원이 적당하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 만약 연구자가 생각하는 선에서 지원금액 상한선을 정해버린다면 이 설문조사에 많은 차질을 빚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표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필자와 생각하는 일치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United co.ltd회사 대표는 5만원에서 10만원이 적당하다는 인터뷰 결과를 얻었다. 왜냐하면 현재 미얀마 현지에서 근로자의 평균적 월급이 13만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의 지원금을 받으면 누가 일을 하고 싶겠냐는 것이다. 이에 같이 온 근로자들도 대부분이 인정하였다. 즉, GDP비율에 맞게 지원금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미얀마에 직업교육훈련 정책이 적용할 수 있는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미얀마에 정착 가능한 기본적인 정책을 내놓고 추후 발전에 따른 부가적인 정책에 관해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직업교육훈련 센터 지역 채택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을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센터는 길을 가다보면 쉽게 눈에 띄게 해놓았다. 도심지역에 내포한 직업교육훈련센터는 컴퓨터관련 쪽이었지만 곳곳에 기관이 설치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가까운 시스템을 접하기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공업관련 분야의 경우 한국은 공단지역 부근에 위치하거나 학원의 형태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Painting and blasting회사는 대다수가 양곤[19] 지역을 선택했으며, 그 다음 제일 많이 선택한 지역은 네피도[20]와 만달레이[21]였다.

---

19) 양곤(버마어: ရန် ကုန် 양공)은 미얀마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옛 수도이자 양곤 구의 수도이다. 원래의 이름은 랑군이었으나 국호를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꾸면서 랑군의 명칭을 양곤으로 바꾸었다. 도시의 이름은 전쟁의 끝 또는 평화라는 의미이다. 면적은 598.75km2이고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4,348,000명이다.

20) 네피도(버마어: နေပြည် တော်)는 미얀마의 수도이다. 2005년 11월 6일 미얀마의 행정 수도로 이전되었다. 핀마나에서 서쪽으로 3.2km, 옛 수도인 양곤에서 북쪽으로 3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2012년 현재 인구는 1,164,299명으로 양곤에 이어 미얀마에서 2번째로 큰 도시로 발전되었다.

21) 만달레이(버마어: မန္တလေးမြို့)는 미얀마 중부의 도시로, 만달레이 관구의 수도이다. 미얀마의 마지왕조인 꼰바웅 왕조의 수도였던 역사가 있는 미얀마의 전통적인 제2 도시이다. 양곤 북쪽 716km에 위치하며, 이라와디 강 동안에 자리하고 있다. 인구는 952,570명(2011)이다. 만달레이는 고지 미얀마의 경제 중심이고 버마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진다. 과거 20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윈난 성에서 중국인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도 하다. 네피도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만달레이는 고지 미얀마의 주요 상업, 교육, 의료의 중심지로 남아있다.

그 외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생겼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수도근처에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자아냈다. United co.ltd회사는 많이 차지한 부분이 양곤과 만달레이었으며, 크게 Painting and blasting회사와 별다른 차이를 내비추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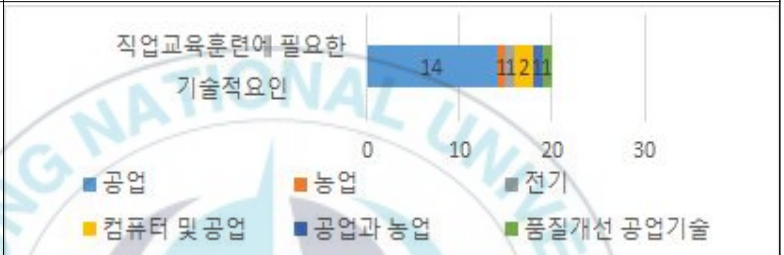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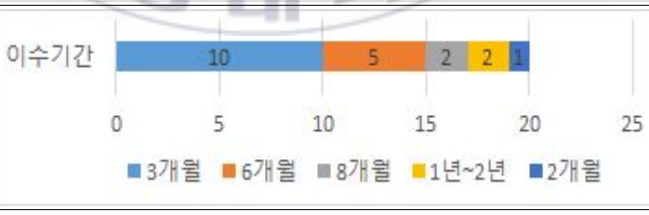
미얀마의 경우 조사결과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한 곳에 생기길 원했다. 미얀마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사람들이 빠르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또 다르게 취업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야 배우고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공업관련 분야는 취업이 용이하며 해당 기술을 사용하기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목적은 이들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 이 부분에 관해 접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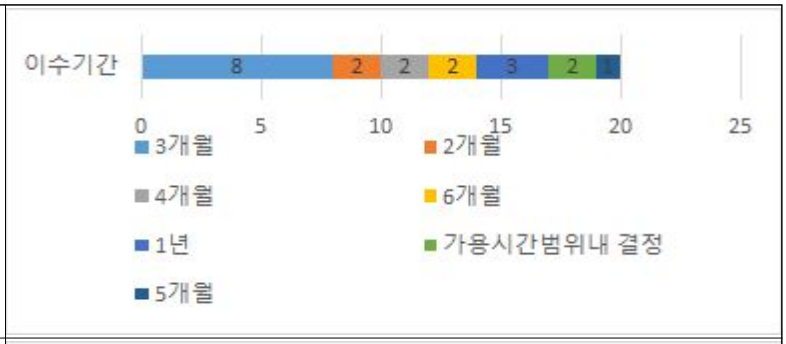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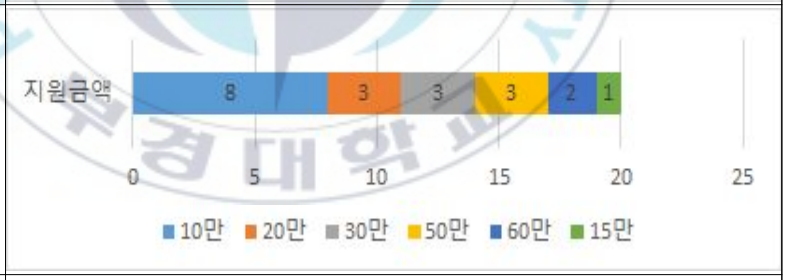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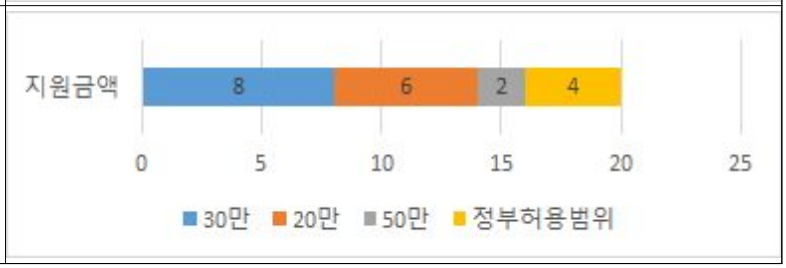
분석결과 대부분이 공업기술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미얀마가 대부분을 농업과 방직기술 그리고 천연자원에만 의존해왔다는 것이다. 공업관련 기술분야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보면 미얀마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자국에서 직접적으로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문제부터 시작하여 고용부분까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서로 연계되지 않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에 공업관련 분야의 기술이 접목된다면 단계적으로 사회정책적으로 증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현재 미얀마의 사정을 본다면 무엇보다도 자력으로 구축하기보다는 기술발전국가와 개발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기반을 세워야한다. 선사례를 가지고 있는 개발협력하에 기반을 세우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한국은 불모지인 동시에 경제력이라곤 하나도 갖추지 못한 나라였다. 하지만

한국이 방직기술을 시작으로 공업기술까지 빠른 발전한 사례를 본다면 미얀마는 이러한 기회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미얀마가 빠르게 민주사회에 걸맞는 발전을 하기위해서는 이러한 기회들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그림 4-1> 울산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제도구축	회사명	내용
직업교육훈련 필요한 요인	P & B	
	United	
이수기간	P & B	
	United	

		
이수시간	P & B	
	United	
지원금액	P & B	
	United	

자료 : 울산산업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그래프로 분석함.

제3절 소결 : 한국과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필요한 개선방안

앞서 제3장에서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제4장 제1절 따가야 지역과 제2절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미얀마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넘어서는 과제라면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미얀마는 한국과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 보완을 제시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빠른 발전 모형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협력적 구조가 빠른 발전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얀마도 정부와 기업의 역할병행이 빠른 발전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선 미얀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한국과 개발협력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했다.

한국과 개발협력단계에 있어 첫째, 미얀마는 우선 한국의 개발협력관련과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 자료 분석을 먼저 진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전정보의 수집단계로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항상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미얀마가 스스로 일어 설 수 있는 방향이다. 무턱대고 개발하고 지원해 준다고해서 그 나라가 바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에 개발협력 도움을 받기 전에 미얀마 스스로 설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미얀마에게 있어 시간의 절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전정보의 수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둘째, 지역을 실험 선정하여 미얀마 정부와 한국 개발협력과의 정보교류가 중요하다. 따가야 지역이 제대로 된 정보의 교류가 부족함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기 위함이다. 베트남처럼 많은 개발협력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여러 번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셋째, 실험 선정된 지역에 미얀마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전환

점이 된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전에 한국정부는 기업과의 협력을 강행했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민주주의 의식이 고양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강제성에서 자율성으로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강제로 집행하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간 사회주의에 머물렀던 적이 많은 미얀마가 자율적 참여로 바뀐다고 해서 그만큼 참여할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미얀마 정부가 강행한다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발목을 잡을 것이다. 때문에 민감한 문제를 한국처럼 정부와 기업의 원만한 관계를 이어 나아가는 방법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즉 필요악적인 강행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 정부의 참여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다.

넷째, 앞서 제시된 시험 선정된 지역을 우선으로 제대로 된 홍보 효과를 거쳐야 할 것이며, 미교육자들을 우선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규과정을 졸업한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여야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미교육자들을 위한 교통수단까지 베트남처럼 조건이 충족된다면 더 나은 자료를 미얀마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섯째, 한국과 개발협력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기관 건립 및 교재 그리고 교사 양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초기문제점으로 거론된 편증된 시각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개발협력을 받았다고 해서 지속적인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행정관리능력과 거버넌스 역시 한국과 개발협력부분에서 따라와 주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따가야 지역의 지원과 관련 된 정확한 자료를 모으지 못한 이유와 관련자료가 부족한 부분 역시 거버넌스로 인한 부족한 부분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초기 개발협력으로부터 많은 부분에 있어 지원이 이루어지겠으나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미얀마는 이어 나아가야 하는 입장이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얀마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개선방안을 한국과 개발협력을 통해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강화에 관한 연구이다. 미얀마는 민주주의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는 국가로 그동안 경제력 부분에서 많이 뒤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로 전환 후 미얀마 역시 초기 산업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직업교육훈련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이다. 우선 미얀마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의 변천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을 사례로 한 이유는 미얀마의 환경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전쟁과 독재정권을 경험하였다. 한국은 전쟁의 경험으로 피폐해진 국가의 재건을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힘썼으며, 특히 한국이 신흥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성장을 동력으로 교육개발과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경제성장 및 민주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달성 가능한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얀마가 직업교육훈련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성공사례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미얀마의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1971년 정부주도하에 시작되었지만 군부에 의한 버마식정권의 교체 및 사회적 인식차이로 인해 정체되거나 제재 속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번복되어만 왔던 직업교육훈련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활성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에 다시 등장한 '2016~21년 직업교육훈련'프로젝트는 그동안 1차 산업에만 머물러있던 미얀마 경제를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산업화를 진행하여 국가 경제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시작단계의 정책에 불과하지만 전략적 목표가 공통적으로 동등한

기회제공, 교육계 인사와 교원 역량강화, 행정업무 능력의 발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업체의 사회협력적 관계를 언급했다. 발전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걸림돌을 살펴보면 현재 미얀마가 가지고 있는 빈곤율, 행정업무의 미숙, 정보전달의 어려움 등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금과 시간의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개발협력에 의한 초기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개발지원을 받는다면 발전성과가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 한국 역시 직업교육훈련의 역량을 강화는데 40년이라는 적잖은 시간을 할애 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한국도 점증적으로 발전하였고, 수원국이었던 시절 선진국의 연구 및 개발협력을 통해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미얀마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얀마의 직업교육훈련은 사실상 초기단계로 많은 전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얀마가 초반 정책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을 통해 시범기관을 운영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동안 자금이나 시간의 소모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운용범위안의 인원을 수용하여 동등한 기회제공을 위한 인원도 고려해야한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기울게 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고질적으로 거론되어 온 취약계층은 소외 받고 있어 계층별 도입이 필요하다.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섭외하여 운영한다면 제도의 개선에 있어 더 나은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앞서 제기된 동등한 기회에는 정보전달과 교통편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베트남 연구에서도 보았듯이 정보전달과 교통편 제공 등을 고려한 제도의 성립은 동등한 기회부여에 해당한다. 외곽지역의 경우 정보전달의 한계점과 더불어 나타나는 취

약계층의 교통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취약계층은 자연스럽게 교육과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넷째,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이 요구된다. 시범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의 실전투입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직업교육훈련부분을 접하면서 민간기업과 타협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의 사례가 증명하듯이 시범기관이 운영하는 동안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기업은 무엇보다도 손실에 대해 민감할 것이다. 때문에 시범기관이 운영하는 동안 손실을 메꾸어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자금운용에 있어 정부와 개인사업체의 협력적 운영 방식은 분명 미얀마의 현 정권에 따르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기관을 선정 후 정부와 타협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기업의 협력과 동시에 개발협력이 공존해야 이를 통해 정확한 통계가 가능하다.

다섯째, 차별적 보조금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차별적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취약계층의 경우 교육을 받는 동안 경제적 손실이 따른다. 교육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범위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정확한 자료와 더불어 제도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행정업무 처리 능력 또한 개발협력이 이루어지는 동안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은 시범기관 운영하는 동안 통계자료 및 연구 결과를 보존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개선 및 발전하는데 있어 더 나은 자료가 된다. 한국의 개발협력과 함께 행정능력 또한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향후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빠르게 대처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에서 동등한 기회제공 및 넓은 지역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끝으로 한국과의 개발협력을 통해 미얀마의 직업교육훈련이 진행된다면, 개발협력 사업 기획 단계에서 미얀마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특징 및 체계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후 미얀마 현지 상황에 맞는 사업 디자인이 구성되어야 한다. 무턱대고 공여국에 의해서 계획이 된다면 필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앞서 제기된 베트남과 미얀마 따가야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은 무시하지 못하는 사항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충돌은 각기 나라의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미얀마는 무엇보다도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미얀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국에 인지 시켜야 할 것이다. 진행과정에 있어 미얀마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미얀마 문화의 특성을 잘 알리고 추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초기에 개선될 수 있는 전략적 구도 역시 마련해야하는 부분이다. 비록 이를 통해 단기간에 빠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초기 직업교육훈련 모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제시 된 운영방식은 미얀마가 개발협력을 통해 스스로 일어 설 수 있는 능력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의 역할로써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본 연구자는 강조한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해 시범기관 운영에 대한 대안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미얀마 직업교육훈련과 관계된 자료의 희소성으로 인해 선행연구가 부족한 점, 그리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한국 국내의 사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미얀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자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주제로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후속으로 생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강인수·장준영·Cho Cho Thein. 2015.“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KIEP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강인수·송유철·이호생·한홍렬.2011.“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

김철희·나영선 외. 2013.“개도국 직업훈련 지원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철희·이영현·김상태·옥준필. 2011.『베트남 직업교육 역량강화 사후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교육과학기술부.

나영선·강순희. 2012.“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제도”.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2006.한-베 산업기술학교 2차 지원사업 사전조사 보고서.

문상원.2014.“개도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추진방안 KOICA 사업을 중심으로”.KOICA.

박인원·강문서·정미경·김태형·신경림.2010.“한국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상선.2002.“한국직업훈련제도의 발자취-제도화 과정에 얽힌 뒷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이계우.2005.“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사업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율성”.중소기업연구

27(2):175-203.

이남철.1999.“직업교육훈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석희·이찬희·신효숙·박영진·이성준·이요한·정미경.2009.“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중장기 - 국가별 교육협력 방안연구“.한국교육개발원.

이영현·이남철 외.1997.“직업교육훈련의 국제협력방안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영현·김현정 외.2013.“직업훈련 프로그램 종합평가 :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이주호.1992.“한국의 이주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노동경제논집15.

오윤아·정재완·박나리.2012.“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윤아·박나리.2013.“미얀마의 개발과제와 한-미얀마 개발협력방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진영,2015.『독일의 직업교육과 마이스터 제도』.

유길상.2009.“경제변화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정책”.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일균.1996.“HDR와 플라톤의 직업교육론 비교 연구”.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정지선·장지순·한정임.2007.“아태지역 직업교육훈련기관 실태조사 사업 Ⅰ:라오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지선 외.2013.“한국의 직업교육훈련”.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택수.2004.“한국의 직업훈련제도의 변화와 과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택수.2008.“직업능력개발제도 변천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원권·문영주.2011.“라오스의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원조 개선방안 연구”.전략지역 심층 연구 논문집 II: 동남아시아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재은.2015.“베트남교육과 공적개발원조.동남아시아연구”.25권 4호 : 77~124.

채재은·우명숙.2013.“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영호·장원섭·옥준필.1998“21세기를 여는 직업교육훈련”.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2005.“교육과 국가발전 상관관계 고찰을 통한 한국형 원조방향” 한국의 개발경험 연구모임.

한국국제협력단.2006.“2011년도 정부초청장학생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국립국제교육원.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2011.한·베산업기술학교 2차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2013.미얀마 따가야지역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후평가 보고서.KOICA.

한국노동연구원.2001.“기업교육훈련 투자의 현황과 과제”.고용보험연구센터.

한국수출입은행.2012.“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한국수출입은행.2016.“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해외경제연구소.

한숭희.2012.“평생학습사회의 직업교육 훈련체계 개선방안 연구”.교육과학기술부.

허 요.2002.“한국의 ODA 공여실태 분석과 그 성과의 제고 방안 : 직업교육훈련 분야를 중심으로”.인천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은표·함시창 외.2014.“교육분야 ODA 종합평가 연구”.APEC 국제교육협력원.

황진회.2004.“우리나라 선원 고용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해운물류·항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주인중 외.2000.“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상호 연계 방안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KOICA ODA 교육원.2016.『국제개발협력-심화편』.시공미디어

KOTRA,2013.미얀마.

KOTRA.2015.“2016 미얀마 진출전략”.양곤무역관.

국외문헌

Lewis,T.1991,“Difficulties Attending the New Vocationalism in the U.S.A”,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25, NO,1

Lundgreen,Peter.1973. “Bildung und Wirtschaftswacbstum im Industrialisierungsprozess des”. 19.Javrbunderts, Berlin, P.72.

McCrory, D. L,1987,“Technology Education : Industrial Arts in Transition,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Research”, Information Serise, No. 325

Rieffel, Lex and James W. Fox. 2013. Too Much, Too Soon?: The Dilemma of Foreign Aid to Myanmar/Burma. Nathan Associate Inc.

Rupert N. Evans & Edwin L. Herr.1978. “Foundations of Vocational Education(2nd ed.)”Charles E. Merrill publishing. pp.1－60

Schultz, T.1963.“ The Economic Value of Education” NY : Columbia University press.

Wolter, S. C. and B. Weber, 2005, “Bildungsrendite - ein zentraler oekonomischer Indikator des Bildunswesens”, Die Volkswirtschaft, No. 10, pp.38-42

World Bank.1994.“The East Asian Miracle:Four Lessons for Development

Policy".NBER Macroeconomics Annual,Vol.9.

온라인 자료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160 (검색일 : 2017년 4월 24일)

미얀마 알린신문

미얀마 교육부 홈페이지,"National Education Strategic Plan 2016-21" http://www.moe.gov.mm (검색일 : 2017년 4월 2일)

미얀마 TVET

http://tvetmyanmar.org/articles/ (검색일 : 2016년 8월 13일)

만인의 교육

https://ko.wikipedia.org/wiki/%EB%A7%8C%EC%9D%B8_%EA%B5%90%EC%9C%A1/(검색일 : 2017년 2월 10일)

세계인원선언문 26조

https://amnesty.or.kr/resource/%EC%84%B8%EA%B3%84%EC%9D%B8%EA%B6%8C%EC%84%A0%EC%96%B8/ (검색일 : 2017년 4월 24일)

『Learning for jobs』

https://books.google.co.kr/books?id=ylk8wPajNdEC&pg=PA31&lpg=PA31&dq=Wolter+and+Weber(2005)&source=bl&ots=gPE73Vg8UZ&sig=QodGsc7bIVLBvglKyD0X_qCY_Mg&hl=ko&sa=X&ved=0ahUKEwi71pSG3ubTAhXJS7wKHZypBZoQ6AEILTAB#v=onepage&q=Wolter%20and%20Weber(2005)&f=false (검색

일 : 2016년 09월 27일)

TVET Myanmar, http://tvetmyanmar.org/articles/ (검색일 : 2016년 10월 29일)

한국의기본법령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 (검색일 : 2017년 4월 24일)

[부록]

설문지

1) 한국어 설문조사

기술연수 교육 상담

안녕하세요. 우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미얀마 경제 도움이 되는 논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미얀마에 가장 필요한 기술교육이 무엇인지 현지 조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적여 주셔도 되고 길게 적어 주셔도 됩니다. 참여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인적 사항. (이 조사는 인적 부분을 조사하는 것으로 종합 통계를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1. 이름 : ( ), 나이 : ( ), 성별 : ( ),
   학력 : ( ) 사는 지역 : ( ).

2.한국에 온 이유?

3. 한국에 기술연수 오기 전에 미얀마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4. 미얀마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 기술연수에 관한 상담. (한국에 온 후 기술연수 부분에 관한 상담입니다.)

1. 한국에 와서 무슨 기술을 배우고 계신가요? (가능한 상세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지금 한국에 와서 배우고 있는 기술에 만족 하시나요?

3. 한국에 와서 이 기술이 미얀마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4.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미얀마에 적용해도 미얀마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5. 한국에 와서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 있어 마음에 드는 점과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한국의 이런 점은 고쳤으면 좋겠고 이런 점은 좋다.” 라고 표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한국에서 기술연수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돈을 어느 정도 한국에서 받는가요? (만약 미얀마 정부에서 이러한 교육센터가 생긴다면 교육을 받는 동안 돈을 얼마 적합한지에 대해 관한 질문입니다.)

♦ 미얀마에 돌아간다면(기술연수를 마치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며 미얀마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상담부분입니다.)

1. 기술 연수 과정을 마치고 미얀마에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2. 미얀마에도 이러한 기술연수교육기관이 생긴다면 어느 지역에 생겼으면 좋을까요?

3. 미얀마에서 기술교육 과정이 생긴다면 어떠한 기술연수 교육 과정을 하고 싶은가요?

4. 기술교육 연수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 하나요? (예를 들어 2개월, 3개월)

5.기술교육 연수 과정이 미얀마 평균 연령(나이)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6. 만약 미얀마에서 기술을 배운다거나 다른 미얀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3번과 관련된 질문)

7. 미얀마 경제 발전에 기본이 된다고 생각 하는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요?

8. 가장 미얀마에 들어왔으면 하는 기술은 어떤 건가요? (이 기술이면 미얀마 경제 발전의 지표가 될 것 같은 기술이 무엇인지 적어 주시면 됩니다.)

9. 미얀마의 평균 노동시간(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10. 미얀마 정부 주도하에 기술교육 센터를 마련한다면 기술을 배우는 동안 지원금은 얼마가 책정되었으면 하나요?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2) 미얀마어 설문조사

နည်းပညာ သင်တန်းမှ သင်တန်းသားများနှင့်

မေးမြန်းလေ့လာခြင်း

မင်္ဂလာပါ။ ပထမဦးစွာ လူကြီးမင်းရဲ့ တန်ဖိုးရှိတဲ့ အချိန်ကို ယူမိတဲ့အတွက် ဦးစွာ တောင်းပန်စကား ပြောကြားလိုပါတယ်။ ကျွန်မကတော့ မြန်မာနိုင်ငံရဲ့ စီးပွားရေးတွင် အထောက်အကူဖြစ်စေနိုင်မယ့် စာတမ်းကို ပြုစုနေပြီး ဒီစာတမ်းမှာ အဓိက အနေနဲ့ မြန်မာပြည်ရဲ့ လိုအပ်တဲ့ နည်းပညာက ဘာလဲ ဆိုတာကို ကွင်းဆင်း လေ့လာခြင်းဖြင့် ဆက်လက်ပြုစုမှာဖြစ်ပါတယ်။ အဖြေကိုတော့ နားလည်သလို အတိုဖြစ်စေ အရှည်ဖြစ်စေ ရေးပေးလို့ ရပါတယ်။ ပါဝင်ဖြေကြားပေးတဲ့ အတွက် ကျေးဇူးတင်ပါတယ်။

အေမီကျော်ဝင်း

ဘူဂရောင်းတက္ကသိုလ် ၊ ဘူဆန်မြို့

၁။ အမည် - ၊ အသက် ( ) မွေးရပ်ဒေသ- အတန်းပညာ-

အိမ်ထောင်ရှိ / မရှိ-

၂။ ကိုးရီးယားကို လာဖြစ်သည့် အကြောင်းရင်း?

၃။ ကိုးရီးယား မလာခင် မြန်မာပြည်မှာ ဘာအလုပ်ကို လုပ်ခဲ့ပါသလဲ။

၄။ မြန်မာပြည်မှာ ကိုယ်က လုပ်ချင်ခဲ့တဲ့ အလုပ်ရှိခဲ့ရင် ဘယ်လို အလုပ်မျိုးကို လုပ်ချင်ပါသလဲ။(ဘာကြောင့်လဲ)

နည်းပညာ သင်တန်းနှင့် ပက်သက်သော မေးခွန်းများ

၁။ ကိုးရီးယားကို လာပြီး ဘယ်လို နည်းပညာကို သင်ကြားနေပါသလဲ။(တတ်နိုင်သမျှ အသေးစိတ် ဖြေကြား ပေးနိုင်ပါတယ်။

၂။ ကိုးရိုးယားမှာ လာပြီး သင်ကြားနေတဲ့ နည်းပညာနှင့် ပက်သက်ပြီး ကျေနပ်မှု ရှိပါသလား။

၃။ ကိုးရိုးယားမှာ သင်ယူနေတဲ့ ဒီနည်းပညာဟာ မြန်မာပြည်မှာလည်း အထောက်အကူဖြစ်စေမယ်လို့ ထင်ပါသလား။(why)

၄။ ကိုးရိုးယားမှာ သင်ယူသွားတဲ့ နည်းပညာဟာ မြန်မာပြည်မှာ အသုံးဝင်ပေမယ့်လည်း မြန်မာပြည်ရဲ့ စီးပွားရေး ဖွံ့ဖြိုးတိုးတက်ရေးမှာလည်း အထောက်အကူဖြစ်စေမယ်လို့ ထင်ပါသလား။

၅။ ကိုးရိုးယားမှာ နည်းပညာသင်တန်းကို တက်တဲ့ ကာလအတွင်းမှာ ကြိုက်နှစ်သက်သော အချက်နှင့် မကြိုက်နှစ်သက်သော အချက်များရှိခဲ့ရင် ရေးသားပေးပါ။(ဥပမာအားဖြင့် ကိုးရိုးယားရဲ့ ဒီလို အချက်ကတော့ ကောင်းတယ် ၊ ဒီအချက်ကတော့ မကောင်းဘူး စသည်ဖြင့်)

၆။ ကိုးရိုးယားမှာ နည်းပညာသင်တန်းကို တက်တဲ့ ကာလအတွင်း ကိုးရိုးယားမှ ထောက်ပံ့ကြေးငွေ ရရှိပါသလား။(ရရှိသည့် ပမာဏ)

(ဒီမေးခွန်းကတော့ ဖြေဖို့ ခက်ခဲနိုင်ပေမယ့် အကယ်၍ မြန်မာပြည် အစိုးရမှ ဒီလိုနည်းပညာသင်တန်းကျောင်း ဖွင့်ခဲ့မယ် ဆိုရင် သင်တန်းတက်ရောက်တဲ့ ကာလအတွင်း ထောက်ပံ့ကြေးငွေ ဘယ်လောက်ရရင် လုံလောက်မယ်လို့ ထင်ပါသလဲ။

မြန်မာပြည် ပြန်ရင် ဆက်၍ လုပ်ဆောင်ခြင်းနှင့် ပက်သက်သော မေးခွန်းများ

၁။ သင်တန်းပြီး၍ မြန်မာပြည်ရင် ဘယ်လို အလုပ်မျိုးကို လုပ်ချင်ပါသလဲ။

၂။ မြန်မာနိုင်ငံမှာလည်း ဒီလိုမျိုး နည်းပညာသင်တန်းကျောင်းများ ဖွင့်မယ်ဆိုရင် ဘယ်ဒေသမှာ ဖွင့်ရင် ကောင်းမယ်လို့ ထင်မြင်ပါသလဲ။

၃။ မြန်မာပြည်မှာ နည်းပညာ သင်တန်းကျောင်း ဖွင့်မယ်ဆိုရင် ဘယ်လို နည်းပညာရပ်ကို သင်ယူချင်ပါသလဲ။

၄။ သင်တန်းကာလကို ဘယ်နှစ်လလုပ်ရင် လုံလောက်တယ်လို့ ထင်ပါသလဲ။(ဥပမာအားဖြင့် ၂လ သို့မဟုတ် ၃လ)

၅။ နည်းပညာ သင်တန်းကို မြန်မာအသက် ပျမ်းမျှအားဖြင့် ဘယ် အရွယ်မှာ စသင်သင့်တယ်လို့ ထင်မြင်ပါသလဲ။(ဥပမာအားဖြင့် ၁၇ နှစ် သို့မဟုတ် ၂၀)

၆။အကယ်၍ မြန်မာနိုင်ငံမှာ နည်းပညာရပ်ကို သင်ယူချင်ရင်ဘဲ ဖြစ်ဖြစ်၊ သင်ပေးရင်ဘဲ ဖြစ်ဖြစ် ဘယ်လိုနည်းပညာရပ်ကို သင်ပေးချင်ပါသလဲ။(ဘာကြောင့်ပါလဲ)

၇။ မြန်မာနိုင်ငံရဲ့ စီးပွားရေး ဖွံ့ဖြိုးတိုးတက်ရေးမှာ ဘယ်နည်းပညာဟာ အဓိက အခြေခံ ကျတယ်လို့ ထင်မြင်ပါသလဲ။ (ဘာကြောင့်ပါလဲ)

၈။ မြန်မာနိုင်ငံကို အရင်ဆုံး ဝင်ရောက်လာစေချင်သော နည်းပညာမှာ ဘယ်လို နည်းပညာဖြစ်ပါသလဲ။(why)

၉။ မြန်မာနိုင်ငံရဲ့ ပျမ်းမျှ အလုပ်ချိန်ဟာ တစ်နေ့ကို ဘယ်နှစ်နာရီလုပ်လျှင် လုံလောက်တယ်လို့ ထင်ပါသလဲ။

၁၀။ မြန်မာနိုင်ငံ အစိုးရမှ နည်းပညာသင်တန်းကို ဖွင့်မယ်ဆိုရင် သင်တန်းကာလအတွင်း ထောက်ပံ့ကြေးငွေ ဘယ်လောက်ရရင် ကောင်းမယ်လို့ ထင်ပါသလဲ။

၃။ မြန်မာပြည်မှာ နည်းပညာ သင်တန်းကျောင်း ဖွင့်မယ်ဆိုရင် ဘယ်လို နည်းပညာရပ်ကို သင်ယူချင်ပါသလဲ။

၄။ သင်တန်းကာလကို ဘယ်နှစ်လလုပ်ရင် လုံလောက်တယ်လို့ ထင်ပါသလဲ။(ဥပမာအားဖြင့် ၂လ သို့မဟုတ် ၃လ)

၅။ နည်းပညာ သင်တန်းကို မြန်မာအသက် ပျမ်းမျှအားဖြင့် ဘယ် အရွယ်မှာ စသင်သင့်တယ်လို့ ထင်မြင်ပါသလဲ။(ဥပမာအားဖြင့် ၁၇ နှစ် သို့မဟုတ် ၂၀)

၆။အကယ်၍ မြန်မာနိုင်ငံမှာ နည်းပညာရပ်ကို သင်ယူချင်ရင်ဘဲ ဖြစ်ဖြစ်၊ သင်ပေးရင်ဘဲ ဖြစ်ဖြစ် ဘယ်လိုနည်းပညာရပ်ကို သင်ပေးချင်ပါသလဲ။(ဘာကြောင့်ပါလဲ)

၇။ မြန်မာနိုင်ငံရဲ့ စီးပွားရေး ဖွံ့ဖြိုးတိုးတက်ရေးမှာ ဘယ်နည်းပညာဟာ အဓိက အခြေခံ ကျတယ်လို့ ထင်မြင်ပါသလဲ။ (ဘာကြောင့်ပါလဲ)

၈။ မြန်မာနိုင်ငံကို အရင်ဆုံး ဝင်ရောက်လာစေချင်သော နည်းပညာမှာ ဘယ်လို နည်းပညာဖြစ်ပါသလဲ။(why)

၉။ မြန်မာနိုင်ငံရဲ့ ပျမ်းမျှ အလုပ်ချိန်ဟာ တစ်နေ့ကို ဘယ်နှစ်နာရီလုပ်လျှင် လုံလောက်တယ်လို့ ထင်ပါသလဲ။

၁၀။ မြန်မာနိုင်ငံ အစိုးရမှ နည်းပညာသင်တန်းကို ဖွင့်မယ်ဆိုရင် သင်တန်းကာလအတွင်း ထောက်ပံ့ကြေးငွေ ဘယ်လောက်ရရင် ကောင်းမယ်လို့ ထင်ပါသလဲ။